



# I&S

INTEGRATION & SOLUTION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뢰인들의 문제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의와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상대적 기준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당파적인 관점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치 않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과 이해관계를 넘는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으로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의·진리의 바른 길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상황을 질서와 채움과 밝음의 해결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악화된 노사관계를 회복·성장시키는 바른 길로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기로 소망합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Telephone 02 2183 2700 [www.ins-lab.co.kr](http://www.ins-lab.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동관19층

# 탐심이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숭배다. 십계명의 제2 계명뿐만 아니라 제1 계명도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라 할 수 있다. '다른 신'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우상이란 마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제2 계명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상은 '형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옛날에는 사람들이 해와 달처럼 물리적으로 주어진 것들이나 형상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신이라 믿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제물을 바쳤다. 그러나 이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이 만든 모든 형상이 다 우상일 수는 없다. 동상, 조각품, 인형, 초상화가 다 우상이라 하지는 않는다.

우상이 되려면 사람들이 그것을 신격화해야 한다. 신이 아닌데 신이라 믿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 낸 것이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고전 8:4) 했다. 이교

도들이 신이라고 믿는 '우상'들은 실제로 아무 것도 아니며, 따라서 그것에게 바쳤던 제물이라 하여 다른 음식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다. 반면에 형상이 없는 이념이나 가치라도 그것들을 신처럼 믿고 숭배한다면 우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한국인들에게는 '돈'이 우상이다. 우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착각하거나 만든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참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가? 바울은 로마서 1:21에서 불의한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즉 잘못 판단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성경적 인간관에서는 잘못된 판단은 결코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 우상을 만들 정도로 잘못된 판단은 죄와 연결되어 있고, 죄의 특성은 교만이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2에서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라 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믿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비합리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적이고 자신에게 별로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 대신 다른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며 자신을 구원한다고 판단하므로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절대'가 하나 필요하다. 하나님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가짜 절대'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5와 골로새서 3:5에서 '탐심'을 우상숭배라 했다. 예수님도 마 6:24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심으로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주로 돈 혹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뜻한다 한다(F. F. Bruce). 그리스도의 자리에 재물을 세우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바울의 시대에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었다면 오늘날, 특히 한국에서는 훨씬 더 분명하고 심각하게 재물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 온 사회가 돈에 의하여, 돈을 위하여 움직이는 돈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로 등극한 것이다. 선거에 당선 되려면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처럼 "바보야! 역시 경제야!" (Stupid, it's economy!)란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

돈에 미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욕망을 충분히 극복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거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달라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교회는 그 둘 가운데 하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참 교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참 교회라야 돈에 미친 사회를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고칠 수 있다.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후 견제세

력이 없어진 자본주의는 전 인류를 위협으로 몰고 있다. 옥스팜(Oxfam)에 의하면 조만간 인류의 1%가 모든 부의 99%를 소유할 것이라 한다. 이미 거의 모든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교회조차도 돈의 우상숭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상하게도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고 있다. 교회 일반이 아니라 자기가 출석하고 자기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우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보다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하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에 이익이 되어도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에 해가 되어도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되면 감행하는 것이다. 대형 버스를 몰고 온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교인을 자기 교회로 끌어가는 것,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고로 자살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궁궐같이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두 교회가 서로 마주대고 서 있는 것,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부정을 저지른 사기꾼들이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에게는 욕이 되어도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 교회 우상'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다.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는 개인의 탐심을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음흉하게 표현하는 전략적 산물이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동일시함으로써 집단적 탐심을 '하나님의 이익'으로 위장할 수 있고 개인들의 노골적인 탐심이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양심의 가책을 무마할 수 있는 것이다.

2년 후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다. 한국 교회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는데 돈과 '우리 교회'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지 않고는 개혁될 수 없다. 

# 월드뷰를 만드는 사람들

<b>대표주간</b>	<b>손봉호</b>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b>발행인</b>	<b>김승욱</b>	중앙대 교수,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미국 조지아대 경제사 박사
<b>편집위원</b>	<b>강진구</b>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SFC문화연구소장, 서강대 박사
	<b>김정호</b>	이화여대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 학회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박사
	<b>김태황</b>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크리스천 최고경영자과정(C-LAMP) 주임교수, 파리제10대 경제학 박사
	<b>박상은</b>	안양샘병원 원장, 고려의대 외래교수,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의학박사
	<b>송인규</b>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前)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시라큐스대 철학박사
	<b>신국원</b>	총신대 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b>우종학</b>	서울대 교수, 예일대 천체물리학 박사
	<b>이승구</b>	합신대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 부총장 역임, 세인트앤드류대 신학박사
	<b>조성돈</b>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라이프호프 운영위원장, 기윤실 본부장, 마르부르크대학 신학박사
	<b>조영길</b>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b>조정민</b>	베이직교회 목사,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前)MBC 워싱턴 특파원 및 뉴스 앵커, iMBC 사장, CGN TV 대표
	<b>실무진</b>	<b>황정희</b>
<b>신효영</b>		월드뷰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간사, 총신대 석사



손봉호 교수



김승욱 교수



강진구 교수



김정호 교수



김태황 교수



박상은 교수



송인규 교수



신국원 교수



우종학 교수



이승구 교수



조성돈 교수



조영길 변호사



조정민 목사



황정희 디자이너



신효영 편집인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및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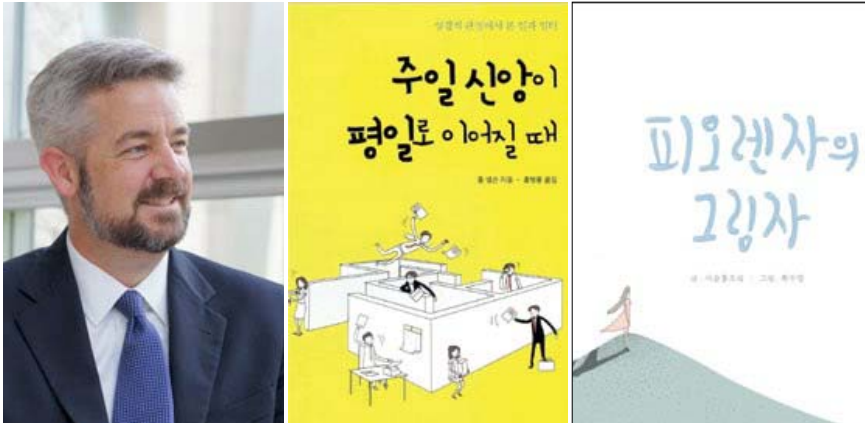
<b>이사회</b>	<b>이사장</b>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b>부이사장</b>	김익원 ((前)총신대 총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b>이사</b>	김승욱 (중앙대 교수),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양승훈 (VI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강인 (엘타워 대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
	<b>감사</b>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b>실행위원회</b>	<b>위원장</b>	김태황 (명지대 교수)
	<b>부위원장</b>	박동열 (서울대 교수)
	<b>위원</b>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교장),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신국원 (총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I 박사),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 Contents

WORLDVIEW · AUGUST · 2015

# WORLDVIEW

2015년 8월호 WORLDVIEW 통권 182호



표지인물 Michael Le Roy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COVER STORY** 06 커버스토리 공공의 장으로 나아가\_Michael Le Roy

- SPECIAL**
- 02 대표주간 탐심이 이상승배\_손봉호
  - 18 기획칼럼 “내 교회주의”: 이상과 이상 타파\_송인규
  - 24 기획칼럼 우리 교회\_황영철
  - 28 기획칼럼 나홀로 교인이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길\_이근미
  - 30 편집인추천 함께, 더 깊고도 넓게

**COLUMN** 32 메디컬칼럼 Cure & Care 세포와 세포 사이\_최현일

- CULTURE**
- 36 땀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 50 편집# 진짜 소망, 우리
  - 52 유머 부메랑\_손봉호

- BOOK REVIEW**
- 38 서평 주일 신앙이 평일로 이어질 때\_김지원
  - 42 서평 피오렌자의 그림자, 안톤의 노래\_추태화

- NEWS**
- 48 사무국 뉴스
  - 49 8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 이종원  
일러스트 김규상, 신선영  
제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인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102호  
(한강르네상스빌 A동)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  
페이지 facebook.com/worldviewmagazine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  
이메일 m.worldview.or.kr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칼빈대학 총장, 마이클 르 로이(Michael Le Roy)를 만나다

## 공공의 장으로 나아가

지난 6월, 경주에서 열린 제7회 국제기독교대학 학술대회에

칼빈대학(Calvin College, in Grand Rapids, Michigan) 총장인 마이클 르 로이(Michael Le Roy)가 강사로 초빙되어 방한하였다. 아래 대답은 한동대학교 학문과 신앙 연구소장인 최용준 교수가 맡아 주었다.

**최용준(이하 최) :**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총장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한국에 오신 이유도 덧붙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Michael Le Roy(이하 Le Roy) :** 먼저,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의 세 기독교대학이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에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의 La Mesa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워싱턴 주의 Bainbridge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미국에서의 제 모든 경험은 기독교 교육(Christian Higher Education)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워싱턴 주에 소재한 기독교 학교인 Whitworth대학에서 학부 시절을 보낸 후, 저는 기독교대학이 아닌 일반 사립 학교인 Vanderbilt대학원으로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학문과 신앙, 특별히 정치학과 기독교 신앙의 통합을 강조했던 Jean B. Elshtain 교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었죠. 이런 선택은 제가 학위를 취득하고, 일리노이 주의 Wheaton대학에서 10년간 교수로 재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2년에 Whitworth대학으로 돌아와 3년간 정치학을 가르친 후 학장과 학사 부총장으로 일했고, 3년 전부터는 미시간 주의 칼빈대학에서 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최 :** 칼빈 대학의 총장으로서 총장님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Le Roy :** 먼저 칼빈대학은 1867년 개교 이래 기독교고등교육에 대한 사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고, 그 유산(전통)의 한 구성원으로 제가 속해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은 학생들이 깊게 생각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 세상을 개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 저희의 사명이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항상 새롭습니다.

향후 몇 년간은 기독교학문과 기독교교육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 교수법(teaching)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언론사를 통해 기독교수진 청빙을 홍보하고, 기독교 학문과 기독교적 교수법에 관한 소책자 시리즈를 개발하는 등 더 많은 자원과 교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 :** 저는 총장님께서 네덜란드 개혁주의 전통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전해 들었을 때 꽤 놀랐습니다. 칼빈대학은 네덜란드 개혁주의 전통 교육기관으로 유명하니까요. 칼빈대학도 이제는 민족적 장벽을 극복하고 미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Kingdom agent)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Le Roy :** (웃음) 네, 제가 칼빈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영광이면서 한편으론 무척 놀랐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은 제가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있으라고 선택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이, 칼빈대학이 추구해 온 사명이 저와 더불어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해 주었고 저 또한 이 사명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기관이든 거기에 소속된 인종이나 민족에 초점을 맞춘다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CRC(Christian Reformed Church)는 북미에서 30만~40만 정도의 교인을 가진 매우 작은 교단입니다. 이 교단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신앙과 학문을 통합시키고자 고민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칼빈 대학 출신이었지요. 미국 학계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란 문구는 칼빈 대학 출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칼빈 대학은 이 전통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교단이 이처럼 강력하고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은 정말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 전통의 한 부분을 맡는다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지요.

**최 :** 이번 강연 중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적 학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Le Roy :** 북미는 갈수록 세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세계관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지요. 이 다수의 세계관들은 과학적 자연주의일 수도 있고 문화 속의 일반적인 불가지론적 무관심이거나, 혹은 허무주의, 혹은 기독교는 아니지만 잘 다듬어진 중요한 다른 종교전통일 수 있습니다. 혹은 대립되는 신학적인 체계로서 가톨릭뿐만 아니라, 북미적 맥락에서의 작은 종교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

인지 명확하게 하고 잘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계관의 핵심은 광범위한 문화에 대한 적극적 참여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명시된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에 근거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된 믿는 이들의 세상참여에서 확인됩니다. 저는 이런 세상과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공의 장(場)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공공의 장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어우러져 세상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의사소통의 방법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의사소통 방법과는 상이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혜와 진리에 입각한 의사소통은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며 세상과 문화에 참여하여 중심이 되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최 :** 기독교신앙과 학문을 통합시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Le Roy :** 많은 설명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류 기독교문화가 이성적인 사고의 접근방식에 대해 제한된 이해, 즉 과학이 취하는 담론이나 논술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담론형식 중 일부는 과학의 이름으로(혹은 과학적 방법론을 차용하여) 신학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과학자에 의해 복잡해졌죠. 그것이 문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과학은 질문(inquiry)에 접근하는 담론형식입니다. 과학은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 이 세상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우선적 근거로 둡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과학은 ‘우리가 (이 알 수 없는 세상을) 안다’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안다는 주장은 다른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즉, ‘과학의 토대가 (질문이) 정확하게 수행되었다’는 전제는 이전의 지식을 사실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담론이 잘 수행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다고 한들 이를 지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과학이 ‘잘 수행되었다’는 것은 과



학 스스로가 절대적이라는 말이 아닌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현대사회에 미친 과학의 기여나 공헌에 대해 매우 냉소적이며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학의 기여에 대한) 좋은 예들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철학적이면서도 신학적인 주장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과학자들은 과학적 대화의 중심에 서서 바르게 분별하고, 신학적·철학적 주장을 하는 주류 과학자들을 비판하고 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대화를 위해 잘 준비된 과학자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칼빈대학에는 과학과 신앙의 통합을 이해하고 있고, 우리의 핵심 고백(key confession)과 고백서 등에 헌신적이고 신학적으로 잘 준비된 과학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과학적 대화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그 분야에서 존경받으며 탁월한 업적을 지닌 과학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원적 상황이 과학과 신앙의 통합이란 주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위대한 철학자, 신학자, 과학자들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간의 대화를 돕고, 과학과 신학·철학 간의 여러 종류의 주장과 차이점을 분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최:** 이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며, 과학 역시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도 과학연구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는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연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칼빈대학에서 매우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많은 기독교고등교육 기관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기독교대학을 포함한 기독교고등교육 기관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Le Roy*: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에 기반한 많은 교육 기관들이 초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독교고등교육기관을 살펴보면, 19~20세기까지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헌신과 참여를 구축하고 확장할 방안들을 찾았습니다. 이 방안들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교육적 소명이나 기독교고등교육 기관에 헌신된 강력한 기독교인 이사회와 이사진을 구성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독교수진을 잘 충원해야 합니다. 기독교신앙에 대한 열정뿐 아니라, 그들의 전공분야, 즉 성경학, 과학, 생물학 등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세계관과 학문에 대한 이해, 과학과 그들이 전공한 학문의 통합 등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교수진을 찾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들어가야만 하고 더 멀리 가야함을 확신하는 교수진을 구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이 신앙과 학문을 통합시키려는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수행하며,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진정한 기독교학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고등교육 기관이란 공동체를 보존하고 지탱하는 핵심요소라 봅니다.

*최*: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 학자를 교수진으로 청빙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훈련시키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칼빈대학에 이와 관련해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Le Roy*: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 카이퍼 세미나(Kuiper Seminar)와 같은 프로그램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최근 카이퍼 세미나 II를 개발하기 위해 'The Council of Independent Colleges'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전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한때 많은 개혁주의 장로교단에서 10대 청소년들이 학교나 교회에서 교리나 신학적 주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권장한 때가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교회들이 기독교교육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수진이 단순히 등떠밀려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질적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최: 전 세계 많은 기독교대학의 학자들도 카이퍼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게 하면 어떨지요?**

*Le Roy:*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비슷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칼빈 대학 인근 주민들에게도 강의를 공개할 수 있겠지요.

**최: 혹시 그런 기회를 직원들에게도 주고 계십니까?**

*Le Roy:* 지금까지는 기독교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더 많은 강연을 열고 외부 강연자를 초청함으로써 저희 직원들도 교수진처럼 많은 기회를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직원들의 소명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백석대학교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인의 사명과 관련하여 대학 전반에 걸쳐 교수진과 직원들이 함께 발전하도록 더 많이 투자하기를 기대합니다.

**최: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칼빈대학의 모든 학생이 기독교인입니까? 비기독교인도 있나요?**

*Le Roy:* 네, 물론입니다. 그러나 비기독교인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커리큘럼(혹은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경험적인 측면이 저희 대학의 사명과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빈대 학생들(Calvin Colleger)은 우리가 기독교신앙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에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학업관련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이 많은 기독교인 학생들로 하여금 “아, 여기에서도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있구나” 인지하도록 진행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들이 기독교신앙과 자신의 전공을 통합시키도록 격려하죠. 학생들이 전체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전공에서도 신앙과 학문을 통합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 그렇다면 비기독교인으로 칼빈대학에 왔더라도 졸업할 때는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겠군요.**

*Le Roy:* 물론이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입학할 당시에는 비기독교인이었으나 기독교인이 되어 졸업한 학생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들이 캠퍼스의 공동체에서 교수들이나 다른 멘토와의 관계를 통해, 그리고 여러 도움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새 삶을 경험했지요.

**최: 칼빈대학의 학생들이 세상에 참여하도록 하고 세계를 변혁시키도록 한다는 내용의 비전선언문(Vision Statement)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이러한 비전선언문의 내용을 커리큘럼(교육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시키셨는지요?**



*Le Roy*: 많은 방법들이 있지요. 실습과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high impact learning)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실제 삶과 문화 속에서 신앙이 어떤 방식으로 실천되는지(be lived out)를 발견하게 되죠. 또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다른 것들도 많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이 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외진 곳, 그리고 세계에 실제로 나아가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하는 것의 신학적 맥락을 이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제가 강의에서도 언급했었는데요, “Plaster Creeks Doer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청년(young people)들과 함께 강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잘 관리하도록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피조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의 통합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 인턴십 등을 통해 다양한 것을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교수들이나 다른 멘토들과 서로 나누게 하죠. 저 또한 기독교적이지 않은 직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처한 다양한 환경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주고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강의실 내에서의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환경’. 이 환경을 통해 그들이 그들의 세계관을 삶과 신앙에 통합하도록 도와줍니다.

*최*: 2년 전, 저는 칼빈대학의 헨리 미터 센터(H. H. Meeter Center)를 방문하여 칼빈주의와 네덜란드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미시간 주로 이민온 네덜란드인 기업가들이 암웨이(Amway) 같은 회사를 건립했을 뿐만 아니라 칼빈대학을 설립하고 그랜드 래피즈(Grand Rapids, 미시간 주의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와 국가를 넘어 전 세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실례가 될 수 있겠지요.

*Le Roy*: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매우 좋은 실례들입니다. 그랜드래피즈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서 많이 살아 봤습니다만, 그런 혁신, 개개인의 자선활동이 그토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도시는 많은 믿는 이들과 지역공동체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큰 빛을 진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것을 소중한 방식으로 다음세대에게 돌려주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선순환

이 가능한 것은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살기 때문입니다.

**최: 총장님은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고자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국적과 문화를 넘어 함께 동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교육의 중요성과 기독교 교육 기관들 간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Le Roy:*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으며 우리는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칼빈대학의 몇몇 교수님들이 이곳에서 열린 국제기독교대학 학술대회(IC-CHES)에 참여했었고, 많은 것을 배워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몇몇 교수님들은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을 방문할 뿐 아니라 한 학기 머물면서 가르치거나 배우기도 했죠. 그들은 한국에서 경험한 풍성한 이해를 갖



고 돌아와, 우리에게 세계적인 관점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목격했고, 칼빈대학이 이곳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최: 서로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교수 교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독교학자들에 대한 인상과 미래의 발전과 협력을 위해 그들에게 한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Le Roy:* 안타깝게도 제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 한국어로 진행된 강연이나 글들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기독교교육에 대해 영문으로 잘 기술한 몇몇 핵심논문(key articles)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그들의 참여에 대한 헌신과 배우고자 하는 깊은 열망, 전통 등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한국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배운 중요한 통찰력 중 하나는 한국 기독교가 다른 종교, 예컨대 불교 등과 같은 타 종교인들과 사회 내에서 큰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한국의 학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국의 기독교 대학들이 공적인 대화(public dialogue)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한국 개신교도들은 공공의 장(場)과 관계를 맺는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의 장에서 한국의 기독교 대학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 귀한 인터뷰 감사합니다. ☺**

# 국제 기독교대학컨퍼런스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and Christian Scholarship, 약칭 ICCHECS)

2001년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대학인 Calvin College(Grand Rapids, MI)의 교수개발프로그램인 카이퍼 세미나(Kuyper Seminar)를 국내에 도입하여 한국 기독교대학 교수와 기독교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신대학교, 백석대학교, 한동대학교 등의 기독교대학들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연합하여 Calvin College의 교수와 외국의 석학을 초청하여 교수개발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제1회는 한동대학교 주관으로 “Gods Calling to Academic Work”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제2회는 백석대학교 주관으로 “기독교인의 책임과 교육과정 개발”, 제3회는 고신대학교 주관으로 “21세기 기독교고등교육의 역할과 도전”, 제4회(2015년)부터는 학술대회 형식을 도입하여 국제기독교대학 학술대회로 명명하고, 강연 및 강좌, 논문발표 및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국제 기독교대학컨퍼런스의 제5회는 백석대학교 주관으로 2017년 6월말에 실시될 예정이다.



## 사랑으로 섬기는 고신대학교

**◎ 박신현** (고신대 교수, 동역회 실행위원)

고신대학교는 ‘한국의 대표 기독교대학’, ‘세계의 명품 기독교대학’을 꿈꾸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강요에 반대하여 신앙의 순결을 지켰고, 해방 후에는 한국 기독교를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가진 공동체로 회복시키기 위해 1946년에 설립된 고신대학교는 개혁주의 신학과 기독교세계관을 한국 기독교계에 알리는 데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던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이며, 기독교학문과 기독교 세계관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이어가고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이며 기독교철학과 기독교 세계관 분야의 훌륭한 학자로서 오랫동안 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쳐 온 전광식 박사가 2014년 1월, 고신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기독교학문 연구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부과정 전공필수인 ‘소명과 학문(기독교 세계관)’에 이어, ‘BEST세미나’를 신입생 필수과목으로 신설하고,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 ‘개혁주의 문화의 기초’, ‘기독교문화와 대중문화’ 등 기존 기독교 세계관 관련 과목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2014년 가을부터 제1기 ‘기독교인문예술 최고위 과정’을 10주 과정으로 개설하고, 각 분야의 저명한 크리스천 리더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교계, 법조계, 경제계, 의료계, 예술계, 교육계, 외식업계 등 다양한 출신의 기독교인들 27명이 수강하여 한국 교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금년 가을학기에도 제2기 강좌가 10월 5일부터 개설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기독교 세계관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개설하여, 가을학기부터 석사과정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초대 원장으로 위촉된 조성국 교수를 비롯하여, 손봉호 박사(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강영안 박사(고려학원(고신대) 이사장, 서강대 명예교수) 등, 이 분야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이 이끌어 갈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기대된다.



## 기독교대학의 글로벌리더 백석대학교

**김지원** (백석대 교수, 동역회 실행위원)

백석대학교의 교육원리는 성경에 기초한 인성교육,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학문연구, 인류를 섬기는 인재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원리를 실천하기 위해, 백석대학교는 학생들이 재학하는 4년의 기간 동안 교양필수과목으로 『기독교의 이해』 시리즈 8개의 과목(매학기 1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목에는 바이블로드(신약), 바이블로드(구약), 기독교 세계관, 예수 알기(WhoRU, JESUS), 애덤 앤 이브, 사랑의 윤리, 정의의 윤리 등의 있다. 이들 과목의 강의는 각 학부의 담임목사나 신학전공 교수들이 맡고 있다.

『기독교의 이해』 교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백석대학교 산하 기독교대학실천원에서는 2014년부터 그동안 사용되었던 교재의 재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재개정 작업의 특이점은 학생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전공 분야를 바라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돕기 위해 각 학부의 전공교수들이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교재는 2015년 완성되어 2016년부터 수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들 수업과 별도로, 각 학부와 전공학과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사회복지, 영적 간호,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물리치료 윤리 등 기독교 세계관과 전공학문을 통합한 과목 등이 운영되고 있다.

## Why not Change the World? 한동대학교

**최용준** (한동대 교수, 동역회 실행위원)

한동대는 기독교 세계관을 모든 학문의 기초로 생각하며 매우 강조한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기독교 세계관 또는 창조와 진화 과목 둘 중의 하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현재 기독교 세계관은 학기마다 2학점으로 3분반이 개설되어 있으며 두 분반은 한글로, 한 분반은 영어로 가르치고 있다. 필자는 한글 한 분반, 영어 한 분반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각각 6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

강의 방식 및 내용은 전반부 8주차까지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내용을 주로 강의하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팀별 발표가 진행된다. 팀 발표는 보통 4명의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며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이슈를 선택하여 그 주제에 관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다루어 보게 한다. 주로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들 중에는 ‘안락사’, ‘외모지상주의’, ‘혼전 관계’, ‘동성애’ 등이 있다. 이러한 발표는 필자인 교수가 한번 검토하고 수정한 후 약 20분에 걸쳐 발표하고 질의 응답을 받은 후, 두 개의 토론 주제를 팀별로 토론하고 남은 시간에 교수가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기말고사에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 보면 이 수업을 통해 세계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수 있는 안목과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나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변혁의 주체로 살아야 하겠다는 헌신을 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그중에는 아직 세계관이 분명하지 않거나 심지어 비그리스도인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도 나름대로 상당한 도전을 받게 되고 기말 고사에 자신의 세계관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 WORLDVIEW SPECIAL

## 우리 교회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 교회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낮부끄럽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더라도  
우리 교회 성장이나 명예에 이익이 되면 무조건 합니다.

내 교회는 그나마 인정해도 다른 교회는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 목사는 목사도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는 성도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만 복음이 있고  
너희 교회에는 복음이 없나요?



# “내 교회주의”: 이상과 이상 타파

그리스도인이나 목회자가 자신이 연관되어 있는 어떤 특정 교회를 생각하고 아끼고 발전시키려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며 기쁨을 받을 처사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나 목회자는 무책임하고 게으른 인물로 낙인이 찍힐 것이다.

그런데 왜 이처럼 자기 교회를 돌보고 애쓰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AT1: 자신의 교회를 아끼고 돌보며 위해서 힘을 쏟는 일*

*그리고*

*AT2: 늘 자기 교회의 외형적 팽창에만 착념하는 것*

을 구별하고자 한다. (AT1)은 책임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견지하는 성숙한 태도인 반면, (AT2)는 빛나간 욕심에 이끌린 이상 숭배적 행위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AT2)에 대해서는 “내 교회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내 교회주의”라는 이상 숭배**

어떤 이는 그저 자기 교회의 번창에 몰두하는 일을 “이상 숭배”로까지 매도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고 의아해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 교회주의”의 실상이 소개되고 나면 오해가 풀리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시점에서 “내 교회주의”의 세 가지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이 세 가지 특징이 누적적으로 작용할 때 “내 교회주의”가 성립된다는 말이다.

첫째, “내 교회주의”는 개(個)교회 중심의 관점으로 고착화되어 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을 사로잡고 있

는 관점은 개교회 중심의 사고 방식이다. 교회에 관한 모든 상황, 형편, 처지를 항시 자기 교회의 입장에서만 파악한다. 이것은 특히 목회자들에게서 훨씬 더 빈번히 또 강렬한 정도로 발견된다. 그들은 교회가 어떤 방침이나 조치를 취할 때 그것이 자기 교회에 유익이 될까 아닐까에만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안이나 결정 사항이 아무리 그럴싸하고 기독교적 대의(大義)를 드높인다고 해도 자신의 교회에 이득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무시하든지 뒷전으로 물려 버리든지 한다. 이렇다 보니까 목회적 성과에 대한 평가 역시 항시 자신의 교회와 연관해서만 이루어진다.

둘째, “내 교회주의”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역의 주요 목표를 수적 성장에만 둔다. 교회와 왜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존재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번듯한 신학적 답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등등이 그런 답변이다. 문제는 이런 존재 이유가 목회의 현실 가운데 별다른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데 있다. 오히려 이런 항목들 보다는 “교회의 수적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가 실제적 동인이 된다. 또 이러한 실용적 존재 이유에 맞추어 교회의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

사태를 더욱 심각히 만드는 것은 첫째 특징과 둘째 특징의 연접에 있다. 만일 어떤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어느 한 가지 특징만 있다면, 그래도 문제의 심각성은 다소 완화되었을 수도 있



**송인규** (前)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며, 현재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이다. IVF 간사와 총무를 역임한 바 있으며, 총신대학교와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을, 시라큐스 대학에서 철학을(Ph. D)공부하였다. 저서로는「나의 주 나의 하나님」,「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복음과 지성」,「고립된 성」,「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이상 MP), 「이는 만큼 누리는 예배」(홍성사) 등이 있다.

다. 예를 들어 개교회 중심이기는 하지만 영적 성숙을 교회의 존재 이유로 삼는다면 [첫째 특징은 있지만 둘째는 아님], 교회의 수적 성장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만 한국 교회 전체를 염두에 둔다면 [둘째 특징은 있지만 첫째는 없음] 할 경우에는 그것이 “내 교회주의”라는 이상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첫째 특징과 둘째 특징이 함께 상호 영향을 끼치며 변성할 때 급기야 이상 숭배의 제의적(祭儀的) 면모는 꿈틀거리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셋째, “내 교회주의”는 다른 교회나 다른 목회자와의 비교·경쟁 의식에 의해 심화된다. 한국 교회 내에 개교회 중심의 수적 성장 경향이 고질화된 것은, 다른 교회(및 다른 목회자)와의 비교 의식 및 불필요한 경쟁 의식 때문이다. 이 역시 일반 교우들보다는 목회자의 경우에 더 뿌리가 깊고 파급 정도 또한 광범위하다. 물론 이런 심리 상태가 겉으로 잘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목회자들끼리는 이것이 얼마나 은연 중에 파괴적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개인적 소문과 뒷담화, 목회자끼리의 비공식적 회합이나 만남, 노회나 총회 등의 공식 집회 등을 통해서 이런 성향은 교묘히 목회자의 심령을 불건전한 방향으로 부추기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이미 첫째와 둘째 특징만으로 “내 교회주의”라는 이상 숭배 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셋째 특징은 이미 형성/성립된 이상 숭배의 영향력이나 정도와 상관이 된다. 예를 들어, 자기 교회의 수적 성장에 몰입한 [첫째 특징과 둘째 특징의 보유] 어떤 목회자가 평소 경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어떤 교회나 그 목회자에 의해 자극을 받을 때 [셋째 특징의 개입], 그 폐해적 위용은 대단해진다. 일단 이런 심리 상태가 궤도에 오르고 가속화되면, 연관된 지도자는 그 마음속에 제단을 쌓고 “자기 교회의 수적 확장”이라는 금송아지를 모셔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는 이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이 되고 자신의 모든 목회 사역과 목회 활동은 오직 이 금송아지를 높이고 섬기는 데 바쳐진다. 그의 심령은 수적 번창의 욕구로 뿔뿔 타오르고, 금송아지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와 크기가 증대한다. 이를 보고 어찌, (골 4:5) 탐심은 이상 숭배니라 라는 판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의문과 답변

물론 아직도 필자의 이상 숭배론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들이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기 때문이다. 이 앙금을 분석해 보면 대개 두 가지 의문으로 축약이 된다.



(i) 첫째 의문: 자기 교회를 책임감 있게 돌보는 것(AT1)과 “내 교회주의”의 첫 번째 특징 — 개교회 중심의 관점 — 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가? 두 가지 항목으로 답변이 가능하다. 첫째, (AT1)은 교회를 좀 더 유기체(organism)의 차원에서 보고 있고, “내 교회주의”는 좀 더 조직체(organization)의 차원에서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체 교회적 시각과의 양립성 여부에 대한 것이다. 즉 (AT1)은 얼마든지 전체 교회적 시각과 함께 주장될 수 있으나, “내 교회주의”는 개교회 중심적 시각이 핵심 신념이기 때문에 전체 교회적 시각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AT1)과 “내 교회주의”의 첫 번째 특징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이다.

(ii) 둘째 의문: 자기 교회의 수적 확장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이 질문자는 속으로 은근히 “꼭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의 답변은 “그렇다”이다. 이런 욕구는 성경의 관심과 동떨어진 것일 뿐만 아니고 반(反) 성경적 경향을 충동질하기 때문이다.

우선, 성경은 개교회의 수적 성장에 대해 별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다. 교회의 문제점이나 지향점을 다루고 있는 사도들의 서신 — 바울의 서신들, 베드로전후서, 요한 서신들 — 만 하더라도 수적 확장에 대해서는 직접적 권면은 말할 것도 없고 간접적 힌트조차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바울의 경우에도 각 교회에 대한 관심은 신학적·교리적·윤리적·상호 관계적 이슈 및 질적 성숙과 연관되어 있지(cf. 롬 1:17; 고전 1:10-11; 갈 1:8; 엡 4:11-16; 빌 4:2-3; 골 2:1-5; 살전 4:1-18 등) 수적 성장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혹자는 사도행전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성경이 교회의 수적 성장을 도외시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과연 사도행전에는 수적 성장에 대한 보고가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나타난다(행 2:41; 4:4; 5:14; 6:7; 9:31; 11:21,24;

16:5). 그러나 사도행전의 수적 언급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퍼져 나가는 데 대한 전체적인 보고(cf. 행 1:8)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개교회의 수적 확장이 궁극적 관심사는 아니다. (특히 행 9:31이나 16:5은 교회 전체에 대한 수적 증가를 말함으로써 이 점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수적 보고를 근거로 해서 개교회의 수적 확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 우상 타파에의 길

그러면 “내 교회주의”의 우상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기 교회의 수적확장에만 급급하는 탐욕적 자세를 고칠(한 걸음 더 나아가 예방할) 수 있을까? “내 교회주의”의 특징이 세 항목이었던, 우상 타파의 방안 역시 세 가지 항목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는 교회에 대한 이해/파악과 관련하여 전체 교회의 시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교회의 상황, 형편, 처지 등의 파악에 있어서 한국 교회 전체의 시각으로 조망해야 함을 의미한다. 목회자는 개교회 입장에서의 득실 여부에만 치우치지 말고, 무엇이 한국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고 무엇이 한국 교회 전체에 손실이 될지 판정해야 한다. 한때 바울 사도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늘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후 11:28)는 진술을 통해 이러한 전체 교회적 시각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이러한 전체 교회적 시각이란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의 심정과 시각으로”(cf. 마 9:36) 한국 교회의 형편을 파악하고자 하는 고상한 시도이며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 길은 한국 교회의 실태를 종교 사회학적으로 기술한 자료나 책자를 읽는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 및 교회의 활동이 객관적 종교 현상의 일부로도 취급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

로 한국 교회를 설문·통계 수치에 관한 실증 자료 및 사회과학적 연구에 의한 발견 사항들에 비추어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물론 종교사회학의 비판적 관점을 덮어놓고 전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 결과를 신성한 자국으로 여겨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은, 한국 교회 전체 시각에서의 실정 파악이 개교회적 실정 파악을 배제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얼마든지 개교회적 시각을 발전시킬 수 있다. 실상이 두 가지 시각은 함께 견지되는 것이 건전하고 균형 잡힌 길이라고 하겠다.

둘째, 수적 성장에의 집착을 무력화할 수 있게끔 목회자 나름대로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인간의 마음은 어느 하나에 최종적 우선권을 부여하면 나머지 사항은 덜 중요한 것으로 밀리게 된다. 이것은 예수께서도 가르쳐 주신 바이다(cf. 마 6:24). 그러므로 “내 교회주의”를 좇아 수적 성장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교우들의 질적 성숙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최상의 관심을 쏟을 수가 없다. 반대로 만일 교회의 질적 성숙이 목회자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면, 수적 성장은 자연히 덜 중요한 것으로 낙착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질적 성숙을 가장 귀하게 여기도록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왕도나 특수한 비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피고 연구하여 그 원리를 내면화하는 수밖에 없다. 우선 바울 서신을 로마서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몇 개월을 투자하여 성경을 읽으며 새로이 발견한 것, 깨달은 것을 정리하는 일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진다. 물론 정리한 바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자신의 목회 실정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또 교회론이나 목회학 분야에 있어 신학적으로도 건실하고 시대적으로도 적실한 기독교 서적을 탐독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이것은 개인적 성경 연구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한 가지 질문은 이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개인 전도 활동이나 교회의 전도 사역은 중단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개인 전도를 포함한 전도 활동은 “내 교회주의”와 무관하게 늘 수행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전도는 결코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눅 15:7; 벰후 3:9), 죄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돕는 일이다(눅 19:9-10; 요 20:31). 그리스도인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교인의 수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전도가 꼭 교회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도 활동을 해도 그것이 꼭 개교회의 수적 증가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고, 믿겠다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이라고 해도 다른 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개교회의 교회 성장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전도 활동은 늘 있어야 한다.

셋째, 오늘날의 목회적 유행과 세태에 영향 받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주위 사람들과 사회 환경에 의해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목회자들끼리 서로 간에 영향을 많이 주고 받는 것은, 교회의 수적 성장을 통한 자기 가치(self-worth)의 확인이다. 이것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목회자의 심령 깊숙이 각인이 될 지경으로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이런 빛나간 가치관은 목회자끼리의 교류를 통해 거의 무의식적 차원에서 세력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 사역과 관련한 목회자의 자존감이다. 이는 자신의 목회 규모가 크든지 작

든지 간에 건전하고 객관적인 자기 평가 능력을 갖추는 일에 관한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보다 교세가 크고 영향력 있는 사역자에 대해서도 시기나 비굴함으로 반응하지 않고 축하와 인정을 시도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자기보다 외형적·내용적으로 규모가 작게 활동하는 목회자에 대해서도 자랑과 교만보다는 풋풋한 동료 의식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경으로 일관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런 내적 태도와 건전한 자신감의 형성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있고 또 매일 그 부르심이 자기 목회 사역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면 동시에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오직 이런 목회적 자존감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만 목회자끼리의 비교·경쟁 의식의 뒷에서 자유로운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은 우상이 있다. 그 대상은 돈·성(性)·명예·과학 기술·민족주의·개인주의 등 날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상들은 외형적으로 세속적 형태를 띠고 있어서 애초부터 경계심을 일으킨다. 그러나 “내 교회주의”는 다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우상이지만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이고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껍질을 쓰고 있어서 우상인지조차 식별이 쉽지 않다. 또 일단 이 길로 들어서면 “내 교회주의”의 열심은 더욱 더 우상 숭배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드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이 방면의 우상 숭배자가 어디에나 그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다. 아무리 힘들고 복잡하더라도 한시 바빠 이 뒷에서 헤어나오도록 힘써야 한다. 물론 더욱 좋은 길은 아예 처음부터 이런 우상과 단호히 결별하는 식으로 마음을 정하고 목회 방침을 펼치는 것이다. ☺

아  
니  
냐



신자들은 통상 자신이 회원이 되어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부른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우리 교회'라 하지 않고 '당신네 교회'라 한다면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라는 말은 그 자체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우리'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 자명한 이야기

인류는 보기에 따라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다. 그냥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인류는 하나이다. 그러나 성경은 두 개의 인류를 말한다. 하나는 아담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존재하는 인류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인류이다(창 3:15; 롬 5:12-21). 이 두 인류는 공간적으로는 함께하지만 영적으로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으며, 때가 되면 공간적으로도 영원히 분리될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이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담에게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물론 그들 믿음이 참 믿음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있다.)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도 한다. 교회라는 말이 원래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몇 개인가? 당연히 하나이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기' 때문이다(엡 4:5-6). 그러므로 '우리 교회'라고 할 때에는 하나인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 자신도 속해 있다는 의미를 기억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 조금 복잡한 이야기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실 속에는 많은 '교회들'이 존재한다. 현실에 존재하는 이 많은 '교회들'과 하나의 교회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 답은 그리 어렵지 않다. 많은 교회들은 어느 특정한 시대에 어느 특정한 곳에 모인 그리스도의 신자들의 무리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랜 역사를 지닌 채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이 되면 그들이 전부 모여서 함께 살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자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곳에 존재하므로 자연스럽게 많은 '교회들'이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많은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으므로 결국 교회는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말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킬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시기, 어떤 장소에 존재하는 회중을 가리킬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 교회'라고 하면 대부분 자신이 지금 속해 있는 하나의 회중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될 것이다.

좀 더 나아가서 조금 복잡한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역사 속에서 함께 활동해 왔기 때문이다. 사탄 혹은 마귀라고 하는 악한 인격자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위협이 되며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 그는 자기의 종들을 교회 속에 침투시켜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 노력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궤환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후 11:13-15).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두고 한 말이지만, 이 일은 당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사 속에 죽어 있어 왔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에는 이 거짓 사도와 거짓 일꾼들에 대한 많



**황영철** 총신대에서 신약학(Ph.D.)을 수학과 영국 University of Surrey에서 에베소서를 연구하여 학위를 마치고 현재 성의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이 비밀이 크도다」, 「중생과 윤리」, 「다시 겸손을 말하다」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등 다수가 있다.

은 경고와 가르침이 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으로 인해 칭찬을 받았다(계 2:2). 오늘날의 교회도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건전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구성된 교단들은, 스스로 교회라고 주장하지만 교회가 아닌 종교 집단을 조사하여 그 실체를 밝히는 일을 해 왔다. 곧 이단을 가려내는 활동이다. 이단이란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구원론과 같은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들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다고 주장하는 집단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은 신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단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좀 유포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 자들의 집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을 밝혀 경고하고, 잘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것을 막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 중의 하나이다. 이것을 위해서 평소에 교리 교육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애매한 경우들이 있다. 이단이라고 규정은 안되지만 저 무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답을 제공할 필요를 느끼고 참 교회의 표지를 가르쳤다. 29항은 이런 말로 시작한다. “우리는 어느 것이 참된 교회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지런히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믿는다—이는 오늘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신앙고백 작성 시의 상황은 신약시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늘날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말은 교회 내에 신자와 불신자가 뒤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어떤 종교 집단에 대한 것임을 밝힌 후에, 신앙고백은 참 교회의 표지를 이렇게 밝힌다. “참된 교회는 다음과 같은 표지들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다: 그 교회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일을 수행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성례를 순결하게 실행한다; 오류를 고치기 위한 권



징을 행한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혼잡스럽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순결하게 언어로 전파하고, 성례로 기념하고, 권징으로 실천한다면, 그런 교회는 일단 참 교회의 외적인 표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외적인 표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종교 집단은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도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

### 엄청 복잡한 이야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어떤 교회가 정통적인 신앙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는데 실제로 가르치고 실천하는 내용이 성경과 다르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을 구원하지만 병도 낫게 하고 세상적인 성공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친다면 어떨까? 신자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가르치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나님의 자비가 크시다는 사실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은연중에 사람들이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여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헌금을 모은다면 어떨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아도 법을 어긴 것이 너무 분명하여 세상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금고형이나 벌금형을 받은 목사를 여전히 존경하면서 따르는 교회는 어떤가? 이런 교회를 참된 의미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참된 교회이기는 한데 아직 어린 교회라고 해야 할까? 이런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일수록 더욱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제 눈을 돌려 우리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살펴보자. ‘우리 교회’는 역사적인 기독교가 확정해 놓은 참 교회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가?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거룩한 보편의 교회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내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죄를 미워하고 의를 추구하는 거룩한 위치에 있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가르침으로 사도의 교훈 위에서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신앙고백들은 하나같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고, 모두가 어느 만큼의 부족과 불결 속에 있다고 가르친다. 즉 아무리 복음을 순결하게 전하고, 아무리 말씀에 따라 성례를 실행하고, 아무리 권징을 열심히 해도 지상에 존재하는 각각의 교회들에는 언제나 불결과 부족이 있다는 뜻이다. 이 부족과 불결이 없는 완전한 교회는 지상에는 없고 오직 하늘에만 있다. 지금도 하늘에 있지만 앞으로 그 완전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지상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도 당연히 부족과 불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교회일수록 자기 교회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을 입에 달고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는 마치 겸손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자기를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성자란 자기가 죄인임을 더욱 깊이 느끼고 알고 있는 죄인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은가.

### 계속해야 하는 힘든 일

지혜로운 신자라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할 것이다. 첫째는 어떤 것이 참된 교회인지에 대해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삼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리 종교적인 이유를 들이대도 그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고 부족과 연약을 깨닫고 부지런히 고쳐 나가야 한다. ‘우리 교회’에 대한 모든 자긍심은 영적인 독약이다. 교만을 부추겨 자신의 험벗음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찌하노 우리는 나오노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롬 3:9) 벨기에 신앙고백 29항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인용하겠다. “거짓된 교회는 자신과 자신이 만든 규정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한다.”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를 염두에 둔 이 말은 오늘날 많은 ‘우리 교회’에도 적용된다. 

# 나홀로 교인이 우리교회로 돌아오는 길



한국 교회 교인이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1200만 성도', '1000만 성도'라고 호기롭게 외치던 소리가 사라져 버렸다. 교인들이 줄어든 이유를 분석한 글들도 많이 발표되었다. 줄어든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떠난 이들이 어디로 갔고, 그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를 알아내는 일이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사석에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부모가 불교여서 일 년에 한두 번 절에 간다”, “천주교인인데 냉담자다. 고해성사를 안 받으니까 벌써 10년 되었다”는 사람이 많았다. 기독교인들은 “주일 낮 예배만 겨우 나간다”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간다는 걸 강조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다. 종교 얘기를 하다 보면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간다. 그냥 혼자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다. 이유도 다양하다. 바빠서, 교회에 환멸을 느껴서, 실망스러운 교인이 있어서, 목사가 싫어서 등등.

‘나홀로 교인’이 많아진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예배’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다. 천주교 1개, 불교 2개에 비해 기독교 TV채널은 5개나 된다. 대낮이든 한밤중이든 틀기만 하면 목사들이 친절하게 설교를 하고 있다. 휴대전화에 앱을 깔면 유명교회 설교도 어디서든 들을 수 있다.

우리 어머니는 30여 년간 매주 한 번 경남에서 가장 큰 기도원에 다니셨다. 1-2시간 거리의 인근 여러 도시로 기도원 셔틀버스가 운행되었는데, 예전에는 대형 버스 몇 대가 꽉꽉 찼다고 한다. 그런데 벌써 오래전부터 울산과 기도원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한 대로 줄었고, 그나마도 큰 버스에 대여섯명만 탄다고 한다.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로 넘쳐나던 대성전은 휴가철에나 문을 열고, 매주 몇십 명의 사람들이 작은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한다. 왜 그렇게 사람이 줄었는지 묻자 어머니가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해주었다.

“사람들이 기도를 덜하기도 하겠지만 기도원에 가야

만 볼 수 있던 유명한 목사님이 TV만 틀면 나오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다.”

나홀로 교인이 많아진 건 우리 교회가 아닌 하나님 이 중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 교회가 끼치는 불편함은 싫지만 예배는 드리고 싶다는 것이 나홀로 교인들의 바람인지도 모른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를 정하지 않는 일명 교회 쇼 핑족들도 많다. 출석교회를 못 정해서 두루두루 다녀 보는 경우도 있지만 딱히 우리 교회를 정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대로 교회에 다니는 이들도 있다.

두세 군데 교회를 다니는 이들도 적지 않다. 교회 건물은 움직이지 않지만 교인들은 수시로 이사를 다니다 보니 주일예배는 등록된 ‘우리 교회’에 가고 새벽 예배나 수요일예배, 금요기도회는 동네 교회로 가게 되는 것이다.

남의 교회에 갈 때 가장 불편한 사항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라”는 권유이다. 평일에 다른 교회 예배에 갔다가 ‘눈치 보여서’ 아예 주중예배를 결석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어 인터넷 신세를 지다 보면 어느덧 나홀로 교인으로 굳어지고 만다.

‘우리 교회’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희박해지지만 목사님들은 “반드시 교회에 등록해야 한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다”를 강조하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런 일을 한다. 함께 모이니 이런 힘이 생긴다”고 강조한다. 또 많은 목사님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이라며 “반드시 등록교회에 출석하여 맨 앞자리에 앉아라”는 예화를 들려준다.


목사님들이 힘주어 강조해도 ‘우리 교회’에 대한 개념은 더욱 흐려질 거라고 본다. 진학이나 취업, 전근 때문에 본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정하지 않고 몇 달, 혹은 몇 년씩 방황하는 일도 많다. 두고 온 우리

교회가 엄연히 있는 마당에 또다른 ‘건고한 우리 교회’에 갇히게 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교인들의 구성비를 보면 젊은층이 절대적으로 적다. 유년주일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교회가 50%를 넘는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가 갑갑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더 재미있는 것, 더 이득이 되는 것이 넘쳐나고 있으니 말이다.

요즘 멘토링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교회 선생님이 해 주던 역할을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대신 해주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멘토링 프로그램 ‘더청춘’의 멘토로 활동하면서 바쁜 대한민국 사람들이 후배들을 위해 열심히 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는 한국장학재단 6기 멘토링 프로그램의 나눔지기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섯 명의 배움지기와 1년 동안 만나는 프로그램이다. 한 달에 한번 배움지기들을 만나 나의 전문성을 그들에게 전수하고 그들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고민은 멘토링으로 해결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해 여러 시도를 하며 글로벌하게 산다.

‘우리 교회’를 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 아예 교회에 관심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다. 점점 화려하고 편리해지는 세상에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교회의 고리를 푸는 것이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 여러 교회를 다녀도 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만의 완고한 교회가 아닌,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면 나홀로 교인들도 슬슬 돌아올 것이다. 



**이근미** 소설가, 미래한국 편집위원이다. 문화일보 신춘문예, 여성동아 장편공모 당선하였다. 저서로는 장편소설 「17세」, 「어쩌면 후르츠 캔디」, 「서른아홉 아빠에인 열다섯 아빠딸」, 「나의 아름다운 첫학기」, 비소설 「대한민국 최고들은 왜 잘하는 것에 미쳤을까」, 「프리랜서처럼 일하라」 외 다수가 있다.

# 함께, 더 깊고도 넓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_엡 3:17-19



## 교회란 무엇인가?

저자 레슬리 뉴비긴 | 역자 홍병룡 | IVP | 정가 10,000원  
원제 (The) Household of God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은,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뿐이다. 이 책은 남인도교회에서 감독으로 섬기다가 1952년 11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안식년을 보내던 뉴비긴이 글라스고우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행했던 커 강좌(Kerr Lectures)를 책으로 엮은 것으로 그의 초기 저작 중 하나이다.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만드는, 오늘을 위한 메시지로 신약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중요한 측면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



##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저자 강영안 외 | 새물결플러스 | 정가 18,000원

요즘 한국 개신교를 떠들썩하게 하는 교회 세습과 종교인 세금 문제에서부터 메가처처 현상, 구약적 사고방식 탈피와 신학교 현황과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선교 문제, 그리고 남북분단 극복까지를 다루었다. 저자들은 문제의식을 갖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머리를 맞대고 개혁의 실마리를 찾아본다. 한국교회의 현안은 물론이고, 치부를 드러내는 낯뜨거운 실화, 그리고 비판과 회개, 아프고 고통스러운 근본적인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성찰해 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기독교인들이 읽고 토론하면서, 가슴을 치며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호소하는 이 책은 한국교회 개혁을 바라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기본적 진리를 깨우치고, 새로운 개혁의 첫 걸음을 내딛게 하는 원동력을 마련해줄 것이다.



## 일그러진 한국 교회의 얼굴

저자 박영돈 | IVP | 정가 14,000원

이 책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청사진에 비추어 최근 한국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진단하고, 성경적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 보려는 목표 아래 신중하게 기획된 책이다. 저자는 성경의 이상과 한국 교회의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괴리감을 깨닫고 절망과 희망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국 교회에 대한 자성과 성찰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결국 저자는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교회의 회개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책은 저자의 신학자로서 고뇌와 목회자로서 심정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진 놀라운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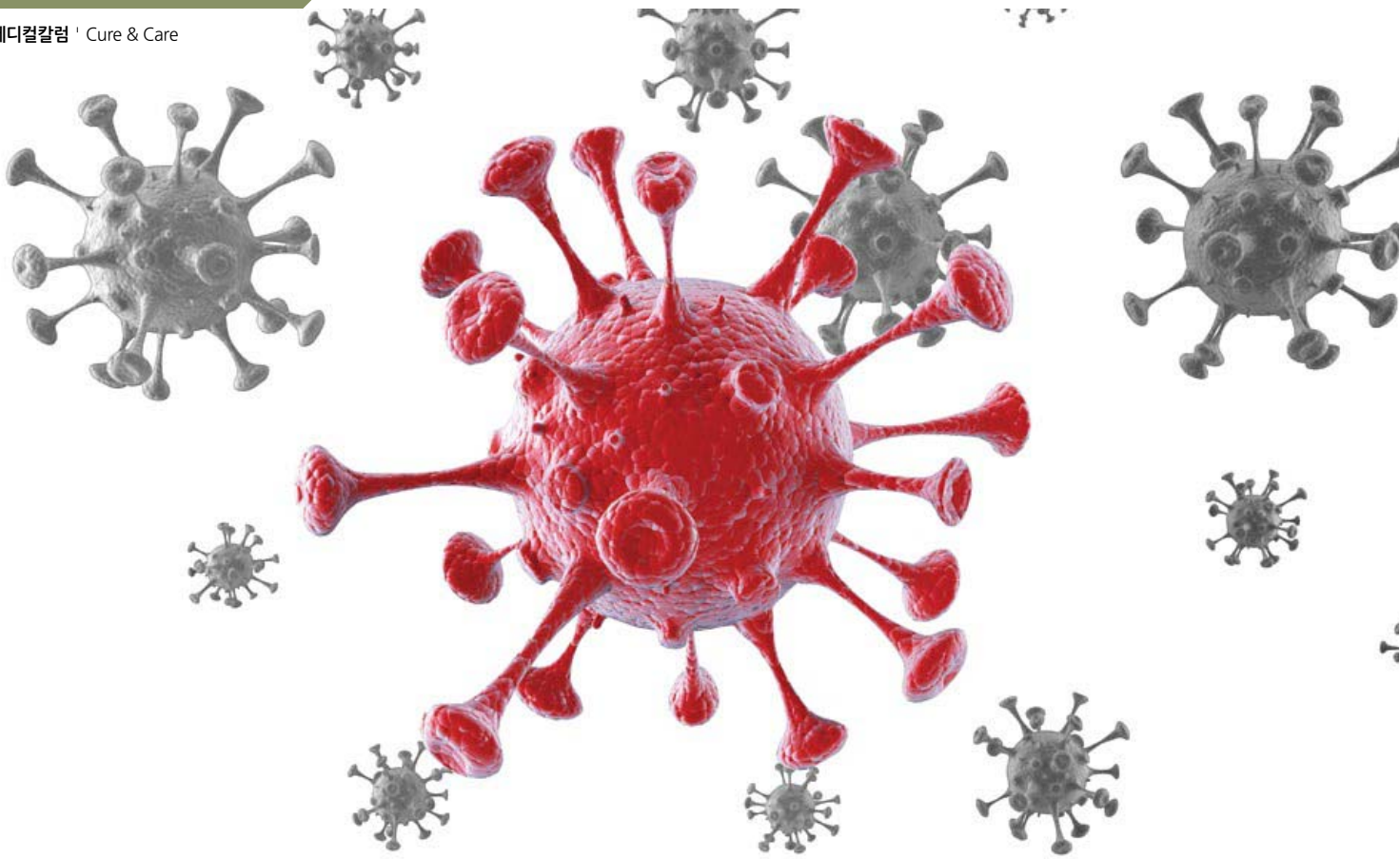


# WORLDVIEW COLUMN

## 연재칼럼

메디컬칼럼 Cure & Care  
세포와 세포 사이

땡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 세포와 세포 사이

시작은 하나였다. 우리는 모두 하나에서 출발했다. 하나의 수정세포에서 시작되었다. 세포는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세포가 60조 개의 세포로 분화하는 데 불과 10달 정도 걸린다. 그리고 그 세포들로 평생을 살게 된다.

초반에는 동일한 특성을 지닌 세포들의 숫자가 늘어난다. 하나, 둘, 셋... 세포 수가 늘어 가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는 듯하다. 그저 같은 세포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공간 속에서 세포가 늘어나다가 그 수가 네 개 정도 되었을 때 생물학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생애 가운데 수정 이후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로 '차원'이 다른 구조가 생겨나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한 평면에 모든 세포가 존재하는 2차원의 구조였는데, 네 개의 세포로 늘어나면서부터는 2차원의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zona pellucida라는 호두껍질같이 딱딱한 막 때문에 세포들은 밖으로 넓혀 갈 수 없게 된다. 한정된 공간을 나누어 써야 하는데, 이제는 2차원에 머물 수 없으므로 차원이 달라져야 한다. 입체적인 구조, 결국 3차원적인 공간의 구조가 생겨난다.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 의과대학에서 Research Ethics 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위원장을 지냈다.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 여덟 번째입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몸의 지도를 따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숨겨진 섭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계에 다다르자 차원이 달라지는 획기적인 전환이 발생했다. 한계가 주는 선물인가 보다. 의학적으로 2차원에서 3차원적 구조로 전환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이다. 이제부터 세포는 공처럼 둥근 세포 표면에 맞닿아 있는 다른 세포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사방으로 맞닿아 있는 다른 세포들과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 세포들은 국경과도 비슷한 서로의 세포막을 맞대고 중간 중간에 교량을 놓아 서로에게 필요한 영양소, 무기질, 세포신호 물질 등을 주고받는다. 상황에 따라 이 교량을 단기도 하고 열기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조절한다. 세포들의 사회관계망이 생겨난 것이다. 가장 많이 쓰이는 세포분자생물학 교과서 중 하나인 『Molecular Biology of the Cell』에서는 이러한 세포들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장 제목을 “Cells in their Social Context”라고 하였다.


이러한 세포들의 사회관계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포와 세포가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포들끼리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기본적인 생명현상과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이 힘이 약하면 아침시간 붓비는 지하철에서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팔이 떨어져 나갈 것이며,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반가이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치는 순간 어깨가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래서 세포들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붙잡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실함이 된다. ‘내가’ 있기 위해서는 ‘네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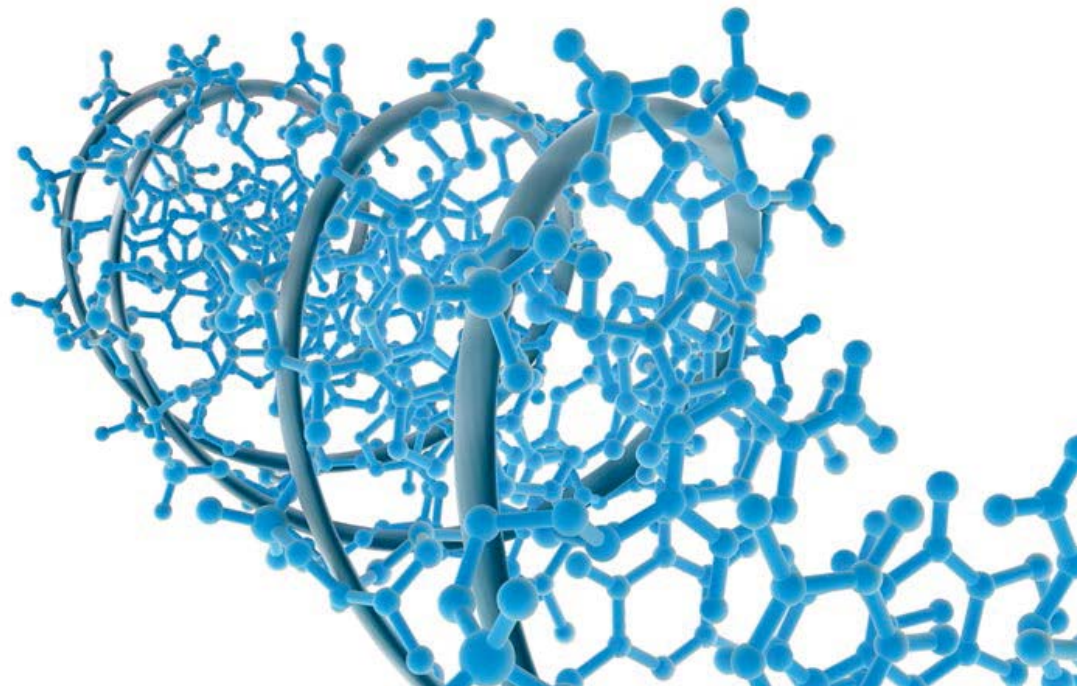
세포들의 사회관계망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힘이 있어야 한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세포외기질’이라는 일종의 접착제 비슷한 구조가 있다. 이것은 세포가 기댈 수 있는 지지대와 같은 것이다. 세포와 함께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로 몸이 성장하고 분화하고 유지되는 모든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런 세포외기질은 세포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과 다당류 등이 세포외기질의 주요 구성 물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포와 세포외기질은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세포와 세포외기질의 관계 패턴이 그 생명체의 형태, 형태를 유지하는 힘, 각기 다른 세포들을 배열하고 제자리에 있게 하는 능력을 결정한다. 이 둘의 관계 형성과 조절에 의해 몸이 자라고 여러 기관으로 분화하며 상처를 치유하는 재생과정들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과정은 일생동안 지속된다. 머리카락과 손톱이 끊임없이 자라고, 소화기관의 세포들이 이틀마다 동일한 모양의 새로운 세포들로 채워지며, 적혈구는 세 달에 한 번 씩 완전히 새로운 세포들이 된다. 몸에 상처가 나거나 수술 받은 후, 세포와 세포 주변의 기질에

서는 원래 몸의 형태를 복원하기 위한 면밀한 계획이 세워지고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진다. 상처 부위의 무너진 세포들에서 나오는 물질들을 인식한 우리 몸은 먼저 응급조치로 그 부위를 지혈하고 응고시켜 피를 멈추게 하고, 인근 각지에서 몰려온 도움 세포들인 염증 관련 세포들이 둘러싸며 수습을 시작한다. 여러 가지 성장인자,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새로운 세포들과 세포 주변 조직들을 지원하며 이전의 모습을 복원해 간다. 세포와 세포간의 협력과 격려가 빛을 발휘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이런 세포와 세포외기질간의 정상적인 협력이 때로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우리 몸에 생겨난 암 세포가 각종 수단을 발휘하여 면역체계의 감시를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세포 주변의 기질들이 암 세포들을 단단히 제어하여 제압한다면 암 세포들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지만, 영리하고 대책 없는 암 세포들은 기발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암 세포는 죽은 척도 잘 하고 변장을 일삼으며, 다른 세포들을 죽이기도 하고, 자신을 검문하려고 온 면역세포들을 무장해제 시키기도 하면서 주변의 세포들과 세포외기질과 관계를 끊고 자신의 잘못된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수정된 하나의 세포가 약 100개 정도의 세포로 증식하면 이제 두 개의 그룹으로 분화된다. 약 50개 정도는 지속적으로 초기 인간(정의: 수정 이후의 모든 과정)의 모습을 이어가고, 나머지 50개 정도는 도움과 지지를 위한 태반, 양수 등을 만들어 온전한 몸의 형태를 이루어 간다. 태반 등을 만드는 세포들을 제외한 50여 개의 세포들은 서로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서 세포외기질을 통해 같은 기관끼리 무리를 지어간다. 처음에는 세 그룹이 생기고 각각의 그룹에서 우리 몸을 이루는 다양한 기관들이 생겨나는 놀라운 세포들의 반전이 이어진다. 그러나 뇌가 생기든, 심장이 생기든, 팔다리가 생기든지 세포들은 서로 붙어있고 세포 사이에는 세포외기질이 지지하며 이 둘은 전체적인 사람의 모습을 이루어 가는데 말없이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이 고마운 코이노이아(koinonía)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초대하고 싶다. 시간: 언제든지, 장소: 세포와 세포 사이. 





# 다섯째 날에 창조된 물속 생물들의 놀라운 세계로 떠나요!

**국내 유일의 창조과학 교과서** 이 책은 호기심에 가득 찬 어린이들에게 대화하듯 재미있게 바닷속 세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래와 물개, 상어, 물고기부터 갑각류와 연체동물, 문어와 같은 두족류, 해파리 등의 자포동물, 불가사리와 같은 극피동물을 공부하면서, 해면이나 튜브웜 같은 흥미로운 수생 동물들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배우는 과학



생생한 사진

& 정확한 과학 지식

## 어린이를 위한 동물학 2

:다섯째 날에 창조된 헤엄치는 동물



성경적 세계관으로 배우는  
창조과학 시리즈

- ①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초등 과학책
- ② 대화체로 풀어나가는 쉽고, 재미있는 과학책!
- ③ 이야기하기와 노트 정리로 비판적, 논리적 사고 향상!
- ④ 최소한의 준비물로 할 수 있는 실험과 프로젝트!



• 지니 K, 돌브라이트 지음 | 류현진 옮김  
• 정가 25,000원



▲ 식물학



▲ 동물학 1 다섯째 날에  
창조된 날아다니는 동물



▲ 동물학 3 여섯째 날에  
창조된 땅 위 동물

<기독교 대안학교 교재 상담> 문의 02-529-7722 | dctybooks@dcty.co.kr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기독교 홈스쿨 가정과 기독교 대안학교를 위한 교재 및 커리큘럼을 공급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학문과 성경을 통합한 도서 및 교재를 소개함으로 통합적 사고를 가진 아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독교교육 전문서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63 / Tel. 02-529-7722 / 홈페이지 www.dctybooks.co.kr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시면 세미나/컨퍼런스/다양한 교육정보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땡스북'은 사단법인 땡스기브에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제작합니다. '땡스북'에서 선정한 인문도서를 매월 '월드뷰'에서 소개합니다.

#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 이오덕과 권정생의 아름다운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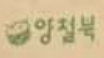
권 선생님  
 원고, 책, 편지, 모두 잘 받았읍니다.  
 어더날 전에 보내 주신 "동면연"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 반가운 편지들  
 못 썼지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취업을 언제 부랴부랴 받았느냐고  
 편지를 보내자 우연한 접두 공백을 찾아보니  
 그 사원할 어서 주지 않았을까  
 잘 읽고 사셨을거야. 소망 없이  
 잘 지냈습니다. 취업을  
 일하면서, 이제 인생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람으로  
 못 나가야 할 생각이 들어.



이오덕 선생님께,  
 낯익은 편지 두통이 드는 건서 지겹게  
 읽어 보셨으리라. 못 읽어주세요.  
 열여섯살 편지는 진짜로 받았읍니다.  
 우리집과 같은 곳으로 갔다. 우리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편지라도  
 잘라. 미리 가고 싶어요. 모두 편지  
 읽은 걸까요? 편지하면  
 또 다른 공백이 여럿이요. 어  
 전과 편지 두통이 드는  
 편지 읽은 걸까요?  
 편지 읽은 걸까요?



이오덕·권정생 씀



○ Recommend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이오덕, 권정생 지 | 양철북

두 사람은 2003년 이오덕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30년을 함께했습니다. 이오덕은 어른과 아이 모두 권정생 작품을 읽기 바라며 온 힘을 다해 그를 세상에 알렸고, 권정생은 죽을 힘을 다해 글을 썼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는 이오덕과 권정생의 삶과 두 사람의 만남을 고스란히 담아낸 책입니다.

Thanksgiving's Think

## 뜻도 없이 친구도 없이 사는 이들에게

인디언 할아버지와 손자가 한밤중에 개들을 데리고 여우 사냥을 간다. 멀리서 개 한 마리가 여우를 발견했다는 듯이 킁킁 짖자, 할아버지가 이야기한다. “여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발견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란다.” 개들이 여우의 냄새를 쫓아간 개울가 앞에서 할아버지가 또 이야기한다. “여우가 여기에 자기 냄새를 남겨 둔 뒤 흔적을 지우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단다.”

포리스트 카터의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의 한 장면이다.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지 않았고, 가지고 있는 동물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어쩌면 그래서 — 사냥개가 거짓으로 짖고, 여우가 자신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 재주를 넘는 것까지 다 알아챌 정도로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살아가는 세계는 넓어졌고, 악수 한 번 해보지 않은 온갖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었으며,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과 사물의 범위는 관리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많아졌다. 우리의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누구든 무엇이든 속속들이 알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기란 시간과 상황 탓만은 아니다.

이오덕과 권정생은 멀리 떨어져 자주 만나지 못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그들의 편지를 읽어보면 둘 사이에 얼마나 깊은 이해와 교감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어른 흉내를 내지 않는, 속이지 않는, 정성을 다 바쳐 아동문학을 하고 싶다는 뜻을 품고 외롭게 살아오다가, 같은 뜻을 지니고 살아가던 서로를 만났기 때문이다. 몸바쳐 추구하는 뜻 없이 단순히 일하고 먹고 쉬며 살아간다면, 이런 친구를 가질 수 없고 이런 반가움도 느끼지 못한다.

뜻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는가? 아니 그 전에, 뜻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 THANKS BOOK

땡스북!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 땡스북

우리는 압니다, 책만큼 좋은 것도 없지만 책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일반도서를 읽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 경건서적만 읽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선택은 분별없이 사람들의 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울타리 안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울타리 밖에서 헤매게 됩니다. 땡스북은 이런 고민을 위해 나온 기독교 지성인의 열매입니다. 신앙을 가진 교사, 부모, 리더, 청년 그리고 교역자로서 일반도서를 올바르게 만나길 원한다면 땡스북을 권합니다.

땡스북은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입니다.



서평 『주일 신앙이 평일로 이어질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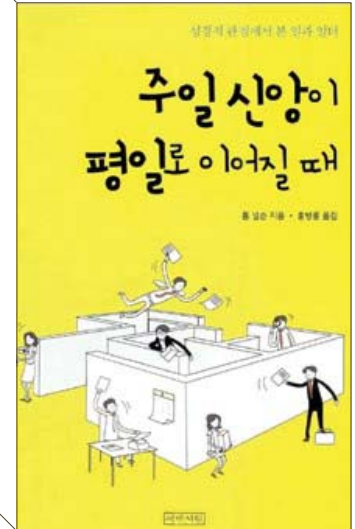
##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대학을 졸업한 후 한 병원에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졸업생이 몇 달 전 상담을 요청하였다. 그 졸업생은 믿음이 좋고 늘 기쁨으로 섬기는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차를 마시며 서너 시간 이야기한 내용은 환자를 치료하는 일은 감사하고 너무 좋지만, 병원 안에서 동료 의료인과의 관계, 병원운영시스템, 임금 등의 문제로 힘들다는 것이었다. 사회 초년생으로 누구나 겪게 되는 어려움이려니 생각하고 위로한 후 같이 기도하였다. 몇 주 뒤 그 졸업생은 같은 병원에 취업해 있는 졸업 동기 두 명과 함께 다시 상담요청을 하였다. 이전과 동일한 상담 내용이었고 하나 추가된 것은 자신들이 병원을 나오면 그것이 후배들의 병원실습과 취업에 폐가 되고, 취업을 추천해 주신 교수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다. 이번에는 제자들의 하소연에 나도 같이 공감하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나누며, ‘너희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니 학교, 후배, 교수님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해 보고 너희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결정하렴. 나는 너희의 결정을 지지해 주겠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 후,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 여건은 변하지 않았을 텐데 그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나 보다.

톰 넬슨(Tom Nelson)의 『주일 신앙이 평일로 이어질 때』를 읽으면서, 이 책을 미리 읽었더라면 취업 후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보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조언을 해 줄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과 함께, 학교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고민해 온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김지원** 현재 백석대학교 교수로 기독교문학회 의료보건분과장으로 섬기고 있다. 연세대학교 재활학과에서 공부하였고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연구분야는 재활치료에 의한 형태학 및 분자생물학적 변화이며, 최근에는 보건의료분야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고 확산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과 일터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일과 일터에서 고민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이 책은 의식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돈과 그 돈이 주는 유익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돈을 얻기 위해 일한다. 그 돈을 통해 우리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학교에 다니고, 병을 치료하고, 여행을 가거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일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기독교 신앙의 여부에 상관없이, 돈의 많고 적음에 집중하고 더 많이 벌려고 아우성인 이 시대에, 이 책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이 문제이며 '일'의 의미와 목적에 집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과 일터에서 얻는 기쁨과 유익이 있지만 그와 함께 따라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피곤한 우리에게 톼 벨슨은, 일은 저주가 아니며 우리는 일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일로 찌들어 있는 삶 속에

서 우리가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그 사람에게 바로 이 책이 필요하다.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이 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일을 못하게 하고 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공작일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p.16)고 말하고 있다.

#### 일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기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들이다. 이 '부르심' 즉, '소명'에 맞추어, 저자는 성경의 눈으로 일을 고찰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의 1장에서 4장까지는 일에 대하여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며 설명하고 있다. 저자가 의도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 일의 창조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 일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해, 우리의 일로 하나님께서 누군지를 반영하도록 설계된 피조물(p.27)”이라고 말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일의 타락

“성경은 일이 타락의 결과는 아니지만 일 자체가 타락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분명히 말한다(p.43).” 일을 하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일의 타락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즐거워야 할 일이 고통스럽고 환멸을 느끼는 일로 변한 것이다. 왜곡되고 타락된 일은 우상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스스로의 건강을 훼손하게 되었다.

### 일의 구속

일의 타락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직업을 그분의 형상을 반영하여 깨어지고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소명의 일부로 보도록 나를 돕고 계신다(p.79).”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우리는 변화된 일꾼으로 일할 수 있다. 저자는 누가복음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며 집에 머물러 있던 장남에 집중한다. 아버지의 집에 머물며 “열심히 일하긴 했으나 그 일이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p.72).” 장남은 단지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했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내면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도 이 이야기의 장남과 같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일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실천사례를 전하고 있는 이야기에서, 변호사 제이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만물이 다시 온전하게 되는 그날까지 내 직업을 통해 깨어진 상태를 보수하고 세상이 본래의 계획에 좀 더 가까워지도록 도울 수 있다(p.81)”고 고백하고 있다.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일과 일터에 적용되기 바란다.

### 일의 완성

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현재의 고단한 일을 잊고,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보내는 휴가처럼 평안한 삶, 혹시 골프를 좋아한다면 골프채를 휘두르며 여유로운 삶을 살 것인가? 저자는 현재의 삶이 천국에서도 연속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모두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수행할 창조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 기간이며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중요하다 주장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속되었으며 “구속의 재건프로젝트에 합류하도록 초대(p.85)”되었다는 것이다. “이미-그러나-아직 (already-but-not-yet)”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는 우리의 일과 일터에서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고, 그 나라를 향해 가야한다는 것이다.

일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설명에 이어, 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대부분의 생애를 구석진 목수 작업실에서 물건을 만들며 보내셨다(p.115)”고 언급하면서, 그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에게 맡긴 일(p.119)”이었으며,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 가운데서도 함께하시며 일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일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또한, 일을 통해 '공동선'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일반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심같이 우리의 직업을 통해 공동선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한다.

우리는 일이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보다는 일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로 더욱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며 고민하게 된다. 저자는 로마서를 인용하며,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특권이므로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우리가 보유하는 최대의 영적 무기는 중보기도이고, '우리 vs. 그들'의 사고방식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함께 일하는 이들을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p.182)." 앞에 언급한 졸업생과의 면담에서 나는 저자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 vs. 그들'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생각이 "옳은 것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끔찍한 영적 자만심과 세속적인 교만(p.181)"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사회나 일터에서 벌어지는 부도덕한 면에 대하여 정의를 외치는 것이 사실 옳은 것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영적 자만심과 세속적인 교만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임을 지적한 저자의 의도는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본 것이다. 하지만, 저자가 언급하였듯이 최대의 영적무기인 중보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실천적 행동을 원하시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기도보다 행동이 앞선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기도와 함께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도 언급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아마 그 일은 독자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저자는 '주일신앙이 평일로 이어질 때'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변화된 '평일의 삶이 주일신앙으로 이어질 때' 이러한 선순환적인 구조가 주일과 평일의 삶에 지속적인 변

화를 주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동료교수들과 식사를 나누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 먹이고 교육시키기 위해 일하다가 그 일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보내지를 못했다', '학생들을 위해 프로젝트 관련 일을 하다가 정작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소홀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관련 없거나 하나님 나라에 소홀하게 되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빨리 가고 성공적으로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의미 있는 한 발을 내딛고 나아가갈 용기를 갖는 것과 주변을 되돌아보며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이제 여름이다. 휴가를 통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때이다. 휴가 때 책 한 권을 들고 간다면 톰 넬슨의 『주일 신앙이 평일로 이어질 때』를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할 것이고, 이 책을 읽고 휴가에서 돌아올 때쯤 여러분이 하는 일과 일터의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일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이 변화되어 더욱 활기차고 창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서평 『피오렌자의 그림자』, 『안톤의 노래』에 부쳐

# 의미를 낚는 자는 복이 있나니...

## I.

누구든지 문학의 바다에 뛰어드는 자는 『문학개론』 입문에서 장르론(Genre)이라는 신기한 조류를 만나게 된다. 때로는 따스하기도 하고 때로는 차디차기도 한 이 물결은 온갖 신비스런 물고기를 몰고 다닌다. 장르는 글쓴이가 의미를 찾아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물결을 쫓아가는지 그 궤적을 보여주는 증표이다. 문학 개념 사전에서 적잖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용어는 문학적 상상력이 얼마나 다양한 변용으로 꽃피우는 게 가능한지 말 해준다. 장르를 이해하면 글감이나 뜻이 보다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고 해석의 갈등, 의미의 혼란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장르는 작품을 구성하는 구조적 특징에 따라 분류한 체계를 말하는데 보통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아동문학 등으로 나뉘어진다(여기서 장르에 속하는 여섯 개 분야를 덧붙여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 다만 장르라는 개념에는 작가의 글쓰기 비밀, 의미를 구성하는 묘수가 숨겨져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 II.

『피오렌자의 그림자』, 『안톤의 노래』라는 제목의 책 두 권이 도착했다. 서평 청탁과 함께. 그런데 책은 손바닥만한 크기에 볼륨이라고 해야 삼십 쪽 안팎이다. 짧은 동화이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했던가, 두 이야기는 호흡은 짧지만 여운이 깊다. 여운이 깊으니 의미가 새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이다. 단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M.A.)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을 공부했다(DR. PHIL.).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



롭지 않을 수 없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고정관념, 선입견과 같은 고질병에게 날카로운 수술칼을 들이대는 형국이다. 말이 수술칼이어서 날카롭다는 표현을 썼지만 오히려 관점에 따라서는 그 여운은 따스한, 포근한, 마치 엄마품 같은 향기를 풍긴다. 아로마테라피(Aroma therapy)가 유행하는 요즘에 이런 동화는 지친 영혼에게 잔잔한 목소리로 들려주면 금방이라도 눈물을 머금을 것 같은 감동을 풍긴다.

동화라는 장르는 영동한 발상의 이야기로 꾸며져 있음이 사실이다. 기괴한 상상력이 가미되어 이야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허풍스런 상상력에 이야기가 바다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가상의 스토리 속에 현실에서는 지나치기 쉬운 의미를 낚아채는 역전(逆戰), 역설(逆說)의 힘이 내재되어 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생각에서 의미를 뒤집어엮는 패러독스의 진실이 숨어 있다. 『피오렌자의 그림자』, 『안톤의 노래』에 그런 역설이 숨겨져 있다. 동화는 그래서 어린애처럼 유치한 이야기같아 보인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성서 말씀을 빗댄다면, 유치한 아이들의 이야기 같은 동화 속에 사실은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열려 있을 줄이야. 동화가 유치하지 않다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피오렌자는 자기 곁에 아무도 없음을 상처를 받았다. 하찮아 보이는 자신의 그림자만 졸졸 따라다닐 뿐. 오히려 다른 이들은 자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 누구도 자기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지 않았다. 그러다 지친 피오렌자. 어느날 그녀에게 친구가 나타났다. 그 친구는 바로 자신의 그림자였다. 피오렌자는 그 순간 자기의 자아를 만난 것이다.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와 화해하는 천국문을 열게 된 것이다.

안톤은 이상한 병에 시달렸다. 아픔이 느껴질 때마다 그의 몸에 구멍이 생겼다. 아픔 하나에 구멍 하나. 아픔 둘에 구멍 둘... 이렇게 아픔이 많아지면서 안톤의 몸에 구멍이 많이 생겨났다. 그 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죽음을 부르는 소리라며 무서워했다. 안톤은 사람들로 부터 배척을 받아 홀로 떨어져 지내야 했다. 외로운 날들에 바람이 불면 그는 그 구멍을 막느라 힘겨워했다. 그런데 안톤에게 신기한 일이 생겼다. 일곱 개의 구멍을 막느라 정신 없는 가운데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몸의

구멍에서 울리는 소리, 그것은 마을 사람들을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서 치유하는 생명의 음악이었다. 상처투성이 안톤은 몸에 구멍을 안고 살아야 했던 자아와 타자 모두에게 천대받던 아웃사이드였는데, 그 구멍으로 인해 회복의 노래를 부르는 천국약사가 되었다. 안톤은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타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바리새적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통해 이웃이 회복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희생의 나무에 올라간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다. 안톤의 구멍은 거의 십자가의 알레고리라 하겠다.

『피오렌자의 그림자』, 『안톤의 노래』는 긴 이야기를 사절한다. 긴 이야기의 낭패는 작가가 너무 자신만만하고 자기 속내를 많이 말한다는 것이다. 독자에게 모든 것을 말기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 하지만 이 작가는 의미의 힘을 믿고 있다. 독자가 언젠가 그 의미를 만나게 되리라는 믿음으로 충만해 있다. 작가는 독자에게 신뢰감을 보낸다. ‘독자님이 이 이야기 속에 풍덩 빠지면 언젠가 자신과 만나게 되실 겁니다’하고 응원하는 것 같다. 작가는 실명을 드러내지 않는다. ‘사슴통조림’이라 불리기를 바란다. 작품은 작품 그 자체로 읽고 느껴야 한다. 작품은 작가의 품을 떠나는 순간 작가와 이별한다. 일명 작가의 죽음이다. 해석에 작가의 아우라를 전제하지 말라는 선언이다. 사슴통조림은 그래서 그냥 희안한 작가의 필명 사슴통조림일 뿐이다. 다만 두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도움말이 언뜻 보인다. 책 한 권에 이런 문구가 있다.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워크샵으로 정체성과 소명을 찾는 이름을 찾는 만남” 『안톤의 노래』에는 각별히 “나를 만나는 이야기”라고 각인되어 있다. 두 개의 동화는 읽고 또 읽어야 한다. 짧다고 무시하거나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 “나”를 만나지 않으면 동화는 끝나지 않는다. 동화 속 이야기는 독자가 자신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는 미완의 이야기이다. 작가가 사슴꼬리만큼 짧은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기획한 의도가 그렇게 숨겨져 있다. 동화를 읽고 독자 자신이 자아를 부동켜안고 울던지 웃던지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던지 그것은 독자의 몫이다. 작가는 단지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독자님이 이 부디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 III.

V. 프랭클(Victor Frankle)은 의미요법(Logotherapy)을 발견한 심리학자로 정평이 나 있다. 유대인인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박해를 피해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강제수용소에 갇히기도 하고 모진 박해를 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미국에 안착하기까지 그가 겪었던 실존에의 공포감은 상상을 뛰어넘는다(참조,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의미치료』 등). 실제로 유대인을 포함한 많은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경우를 목격하기도 했다. 프랭클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자살하지 않은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용감하게’ 자살하지 않고, ‘비겁하게’ 자살을 포기한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의미(意味, the meaning)였다. 그 의미가 유치한 것이든 비범한 것이든 가족을 위한 것이든 아주 이기적인 것이든, 거룩한 것이든 무슨 하찮은 것일지라도 내면에 그 어떤 의미가 각인된 이는 결코 자살을 감행하지 않았다. 프랭클은 여기서 의미에 몰두한다. 의미가 실존을 엮어 가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생(生)에의 용기, 내일에 대한 희망, 실존에의 추진동력은 다름 아닌 의미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두 동화를 펴낸 “사슴통조림”도 같은 부류의 작가일 것이다. 프랭클처럼 그도 의미에 꽂힌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는 분명히 이야기를 통해 의미 바리새를 세상에 잔잔히 퍼뜨려 인간을 널리 이롭게


게 하려는 홍익인간형 의미전도사일 것이다. 모르고 해도 그가 추구하는 “이름 찾는 캠프”라는 곳은 각종 의미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혈값에 분양해 주는 이타적 기관일 것이다. 어쩌면 이런 별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사슴통조림 같으니라구..’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복된 삶을 누리세요”가 되지 않을까. “행복을 찾아서”, “모모를 찾아서” 해져 이만리로 떠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이곳에서 의미를 만날 수 있다면 행복은 그저 따라오리라.

#### IV.

세상은, 아니 넓디넓은 이 우주는 의미로 충만해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실 때 인격적인 부분도 함께 혼재하게 하셨다. 인간이 만나는 것 중 무의미한 것은 없다. 우주가 진공으로 가득 차 있듯 온 세상은 의미로 충만해 있다. 문제는 그 의미를 만나느냐 지나쳐 버리느냐에 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시 19:2,3) 의미는 유동적이다. 때로 느리게 때로 번개처럼 사람을 지나친다. 촉(觸) 없이 의미를 낚을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 때문에 면벽구년(面壁九年)이라는 말도 생겼다. 대선사가 ‘의미’를 깨닫기 위해 구년 동안 벽을 향해 용맹정진한 고사에 기인한다. 불가에서는 화두 하나 풀면 세상의 진리를 깨닫고 성불하게 된다는 믿음으로 투신한다. 하나의 의미를 풀기 위해 출가하고 세상을 방랑하고 몸과 영혼을 던지기도 한다. 그만큼 의미는 신비하다. 의미 하나 풀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게 인생이다. 인생이 의미를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의미가 인생을 만든다. 만들어진 의미도 있으며 주어진 의미도 존재한다. 그래서 “신적 의미”(The Divine Meaning), 진정한 의미, 거룩한 의미, 생명의 의미를 만나는

게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의미는 존재한다. 그러기에 “그 의미”(The meaning)를 찾아 종교에 귀의하기도 한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 한 편의 동화를 쓰고 읽는 과정은 망망한大海에 그물을 드리우고 고기를 잡아 올리는 어부의 행위가 아닐까 상상해 본다. 그리하여 동화를 둘러싼 독서 행위는 드넓은 바다에서 의미를 거두어 올리는 지난하고도 행복한 작업이리라. 망망한大海에는 조류를 따라 이리저리 헤엄쳐 다니는 수많은 의미의 물고기들이 충만하며 거기에 의미의 그물을 던져 의미를 건져 올릴 때 삶의 의미가 새로우리라. 동화라는 장르에는 동화작가도 있고 독자도 있으며, 그들 모두모두, 나아가 글 읽는 독자 모두는 의미의 그물을 던져 일백선 세 마리 넉넉한 의미를 거두어 올리고 그 의미를 이웃들과 함께 이리저리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지져 먹고, 튀겨 먹는 의미의 셰프들이요, 의미의 어부들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의미들의 의미, 의미들의 “바로 그 의미”(Just The meaning of meanings), 셋째 하늘로부터 허락되는 “그 신적 의미”를 낚는 자는 복되리라. 

---

※ 본 서적은 일반 시중이 아닌 온라인 판매만 가능합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소명교육개발원의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소명교육개발원 <http://www.cedi.or.kr/default/00/01.php>

##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5년 6월 30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1,010,000	인건비	일반급여	3,600,000
	임원회비	700,000		기타급여	790,750
	일반회비	6,103,500		소계	4,390,750
	기관후원금	3,6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550,000
	월보구독료	737,500		사무실관리비	356,000
	CTC후원금	320,000		통신비	583,510
	기타후원금	20,000		우편료	59,750
	학술지원금	2,000,000		소모품비	364,800
				비품	44,000
				식비	342,000
		복리후생비		612,580	
		퇴직연금		293,240	
		교육비		37,800	
		회의비	80,000		
		기타	232,338		
		소계	3,556,018		
	소계	14,541,000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299,175
				VEW후원금	3,985,964
			소계	4,285,139	
기타수입	결산이자	13,031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2,500,000
	예수금	314,370		발송비	760,380
	소계	515,645		소계	3,260,38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회 강사료	0
	학회지판매	54,000		학회홍보및기타	677,050
	학술지심사비	210,000		학회기타	161,500
	학술지게재료	2,500,000		학술지심사료	0
	학회기타수입	1,000,000		학회기타	0
	소계	3,864,000		소계	838,550
당월 수입액	18,732,401	당월 지출액	16,330,837		
전월 이월액	37,307,804	차월 이월액	39,709,368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5년 6월 30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2,100,000	인건비	직원급여	1,900,000
				소계	1,900,000
	소계	2,100,000	제작비	교정비	160,000
		편집비		300,000	
		디자인비		1,188,000	
		인쇄비		2,636,700	
		기타제작비		50,000	
		소계		4,334,70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5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275,000
	도서판매비	71,050		복리후생비	347,070
	기타수입	160,570		퇴직연금	137,730
				관리비	30,000
				식비	9,000
	소계	2,731,620	소계	798,800	
		기타	기타	2,000	
			소계	2,000	
당월 수입액	4,831,620	당월 지출액	7,035,500		
전월 이월액	47,748,203	차월 이월액	45,544,323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합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매월 보고합니다.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6월 30일 마감)

##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Susanto Agus, 김경현, 김고운, 김봉현, 김삿벌, 김성욱, 김영주, 김정원, 김진호, 김태영, 김태우, 김형근, 김희원, 박상희, 박원근, 박지만, 생명의강, 성관수, 안용주, 영은사, 유성욱, 이수형, 장재수, 정세열, 정필규, 정필화, 조성진, 조영래, 지경순, 진성자, 최원길, 하태실, 한재승, 함께하는교회 5천 공승건,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미정, 김방민, 김성은, 김성찬, 김성택, 김영운, 김은경, 김정명, 김장심, 김정준, 김재우, 김태연, 김태윤, 김항아, 김현경, 김혜창, 노승욱, 노주하, 박광재, 박상규, 박승룡, 박천규,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송호욱, 신기혁, 심정하, 안성희, 우수민, 유은자, 유종열, 윤경숙,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영홍, 이인수, 이종혁, 이항숙, 임소연, 임천석, 임형준, 임호숙, 장한일, 전광학, 전정진, 전충국, 정봉현, 정한공, 조은아, 조인진,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 김경희, 김삿벌, 황귀희 7천5백 고상선, 권순익, 김나실, 김상욱, 김은민, 김재우, 박대희, 박현빈, 방선기, 이병주, 이세호, 이은수, 전영식, 장원길, 정찬우, 진영규 1만 가월현, 김동진, 강민창, 강석현, 강승모, 강연정, 강은정, 강은주, 강효식, 고길현, 고선욱, 고연경, 고재호, 곽은이, 곽정인, 구준희, 권경호, 권만규, 권순범, 김원평, 김경식, 김경원, 김경화, 김고운,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민, 김남진, 김동우, 김동준, 김미미, 김미혜, 김민성, 김범식, 김병국, 김보경, 김봉례, 김상범, 김성욱, 김성경, 김성민, 김성인, 김성진, 김세경, 김세연, 김세원, 김세중, 김수진, 김승남, 김승호, 김아론, 김양호, 김영숙, 김영안, 김영호, 김용석, 김윤관, 김윤정, 김은덕, 김은영, 김은태, 김은혜, 김은혜, 김일, 김재정, 김조연, 김정일, 김정진, 김정호, 김정화, 김중국, 김중훈, 김진성, 김진아,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판임, 김혁, 김현정, 김형길, 김혜진, 김홍섭, 김홍제, 김호석, 김호수, 나동훈, 나은숙, 남서희, 리영환, 류지호, 류현모, 마민호, 문제환, 박경원, 박계호, 박기연, 박승안, 박두석, 박두한, 박복애, 박상호, 박성인, 박승호, 박시운, 박애란, 박용성, 박은영, 박은주, 박중국, 박종원,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지현, 박진규, 박창규, 박창우, 박해일, 박현경,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세원, 배이론, 배인규, 백경은, 백현준, 변영순, 변희지, 부천명안교회, 서유미, 서정연, 서화진, 석춘희, 성광원, 소종화, 손영규, 손하은, 손하나, 손현탁, 송종철, 송철호, 신규, 신동민, 신상형, 신성자, 신자영, 신진선, 신찬웅, 신현정, 신현주, 신형규, 신호기, 신호영, 심명섭, 안남주, 안병열, 안 석, 안영희, 안용준, 양성건, 양예찬,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오성호, 오은열, 오지순, 옥재호, 우현기, 유건호, 유경상, 유경숙, 유기남, 유기성, 유동준, 유상원, 유선덕, 유영준, 유은희, 유익신, 유지항, 유창은, 유해무, 유화원, 유희진, 윤명섭, 윤상현, 윤숙자, 윤천석, 이갑두, 이 강, 이경숙, 이경식, 이계섭, 이권철, 이규현, 이기훈, 이길규, 이길형, 이동훈, 이명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금, 이상기, 이상무, 이상수, 이상환, 이선복, 이상수, 이수연, 이승엽, 이시영, 이언구, 이연경, 이연희, 이요한, 이원배, 이원철,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희, 이은미, 이은주, 이은혜,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현, 이종국, 이종환, 이준성, 이자숙, 이지연, 이지연, 이지훈, 이진영, 이학성, 이해리, 이호선, 이환일, 이희진, 임동민, 임동진, 임미림, 임소현, 임수연, 임우진, 임일택, 임재광, 임춘택, 임현영, 장슬기, 장승재, 장승호, 장영창, 장옥경,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진수, 장태준, 전통일, 전명희, 전성구, 전장원, 전통화, 전찬양, 정경식, 정동섭, 정세준, 정승수, 정은경, 정은희, 정정숙, 정진우, 정현구,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백형, 조성은, 조승희, 조용현, 조은상,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주영, 조지현, 조현용, 조혜경, 조혜신, 주경식, 진정용, 차봉준, 차유림, 차정규, 최삼열, 최성호, 최세진, 최승호, 최영, 최윤영, 최준빈, 최진우, 최한빈, 최현정, 최혜경, 최호영, 주진연, 태영숙, 하성만, 하진호, 하현진, 한인관, 한혜실, 한희수, 허 연, 허찬영, 허 현, 현승건, 현하나, 홍구화, 홍선호, 홍세기, 홍정석, 홍준호, 황기철, 황도윤, 황성신, 황세환, 황의서, 황인경, 황태연, 황혜숙, 황혜정 1만5백 주성탁 1만4천 이도령 1만5천 강찬진, 김성화, 김효순, 이지은, 정상섭, 조영숙, 최동원 2만 David Han, 강대훈, 강윤란, 김소라, 김용식, 김은정, 김인숙, 김정호, 김준희, 김지민, 김태호, 노경순, 노용환, 배성민, 배지연, 백은석, 변우진, 석지열, 송현미, 양혜원, 우시정, 이 건, 이명희, 이인아, 임 영, 정문선, 조창근, 최현식, 한진영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김중규, 문석윤, 박성진, 박신현, 서성록, 오익석, 오하나, 우병훈, 이덕영, 이예진, 이은실, 임희옥, 장수영, 최용준, 추태하, 한화진 황정진 4만 오경옥, 이종원, 조은국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성민, 김시호, 김영화, 문준호, 서진희, 신국원,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성대,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6만 강진규, 김지원, 백성희, 이근호, 조무성 7만 최태연 8만 권정아 10만 김미영, 김원수, 김익원, 박상은, 송인규, 윤완철, 이기섭, 전광식 12만 김정준, 박영주, 서승학, 정혜경, 최영근, 현창기 15만 손봉호 21만 정영록 30만 김승욱, 김원수 100만 홍명식

계 9,891,000원

## 기관후원금

5만 개봉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마포중앙교회, 새길침례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신반포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글로벌한가축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송탄제일교회, 언약교회, 예심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카이스트교회, 흰돌교회  
20만 삼일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50만 사랑의교회, 주님의십자가교회  
100만 엘비전

계 4,650,000원

## 광고후원

삼성전자, 엘타워, I&S법무법인, 홍성사, DCTY, 오하우스코리아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WORLDVIEW NEWS

## [교회별 신청] 청소년 기독교미디어 캠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개교회에서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사역자분들을 돕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영상을 제작하는 청소년 기독교미디어 캠프를 교회별로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홍정석 간사  
(교육문의 02-745-7237, cmca@worldview.or.kr)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

## [기독교 대학원생 모임]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 5시! 삼일교회에서 만나요!

젊은 신진학자들을 위한 자리, 기독교 대학원생 모임이 삼일교회 C관 2층에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 일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 5시
- 장소 삼일교회 C관 2층 (숙대입구역 10번 출구)
- 문의 02-754-8004

## [임원] 2015년 임원수련회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1박 2일 임원수련회가 2015년 8월에 있습니다. 깊은 나눔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일시 8월 21일(금)-22일(토) 1박2일
- 장소 별도공지

## [하반기 해외석학 세미나]

지난 5월 존 주니어 위티(에모리 대학 법학교수이자 법학자)에 이어 바키대학교 부총장 Gwen Dewey의 『일의 신학』에 대한 세미나가 준비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일시 8월 28일(금) 저녁 7시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



## [2015년 2차 이사회 보고]

지난 7월 20일(월) 엘타워에서 실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이사 및 임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매번 이사회 장소로 섬기시는 엘타워 이강인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기초과정 12기 모집]

1인 미디어 시대, 가장 중요한 미디어는 사람입니다. 든든한 신앙의 기초와 기독교세계관으로 훈련될 미디어 군사를 모집합니다. 언론과 방송을 향한 미디어 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교육기간 : 10월 10일(토) ~ 2016년 1월 29일(금) 예정,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6시
- 접수마감 : 2015년 9월 11일 (금) 18:00까지 상시모집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cmca.or.kr)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후 선발
- 교육장소 : SICA(양재동 소재), CGN-TV(서빙고동 소재)
- 교육대상 :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기독교영상제작 관심자  
(세례교인, 1977년 이후 출생자)
- 교육비 : 외부기관 후원으로 수업료 무료  
/ 등록금 350,000원
- 문의: 홍정석 간사 Tel 02-745-7237  
E-mail cmca@worldview.or.kr

### 8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1	16
2	17 <small>12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접수</small>
3	18
4	19
5	20
6	21 <small>2015년 임원수련회</small>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small>『월드뷰』 9월호 발행</small>
13	28 <small>대학원생 모임 해외석학 세미나/ Gwen Dewey</small>
14	29
15	<small>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 공동칼럼 발행</small> 30
	31

- 7/30(목) VIEW 입학설명회 (오후 7시 30분, 100주년기념교회사회봉사관)
- 8/15(토)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 공동칼럼 발행
- 8/17(월) 12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접수
- 8/21(금)-22(토) 2015년 임원수련회
- 8/27(목) 월드뷰 9월호 발행
- 8/28(금) 대학원생 모임 (오후 5시 30분, 삼일교회 C관 2층)
- 8/28(금) 바키대학교 부총장 세미나

## 진짜 소망, 우리

며칠 전,  
오랫동안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던 한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 병수발 들던 딸에게 깔깔 웃으며 그러셨답니다.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어”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 가셨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살며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난이 세상의 가장 큰 스승이란 말이 있는 걸 보면  
살이 결코 만만치 않은 거겠죠.


아등바등 살아가는 삶의 전투에 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는커녕,  
오늘 조금 더 잘 사는 것이, 내일 뭔가 더 가지려는 욕심만이 전부인 듯 살지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져가고,  
깊은 안식을 삶 속에 누리기를 소망하기보다는 오늘과 내일의 안위가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요.

우리는 왜 자꾸만 잊을까요.  
그 바람은 오늘 이곳에만 머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눈 감기 전, 우리가 소망할 한 하나가 그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살이 팍팍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영광 앞에 얼마나 팍팍하고 고생스럽고 한스럽겠습니까.

어려우시죠.  
고민되시죠.  
힘들다, 짜증난다 입에 달고 사시죠?  
내 삶을 둘러볼 때 희망적으로 보이는 일이 하나 없고  
어제 한 일은 왜 이리 후회스럽고  
돌이키기 어려운 일 뿐이고  
그렇다고 내일도 그다지 소망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그건 그냥 삶입니다.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우리 소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진짜 소망해야 할 그것.  
진짜 소망을 바라봅시다, 우리. 

이 땅의 청춘들에게

야매 상담

오선화 지음

A5변형/248면/전면 컬러/12,000원

정답은 없어도  
정답은 가득!

야매상담 野味相談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촌스럽고 어리석어 보여도 좁은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가기 위해 서로 나눠야 할 이야기.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 이들과 마주하고 오선화가 나누고 싶은 정담情談.

<http://www.hsbooks.com>

홍정사.

10대의 ? 70대의 !

물음표

느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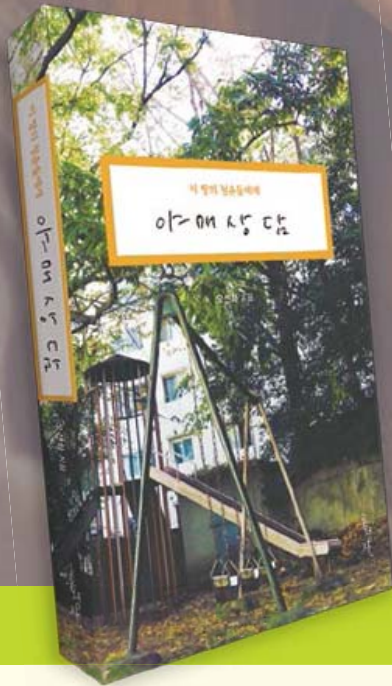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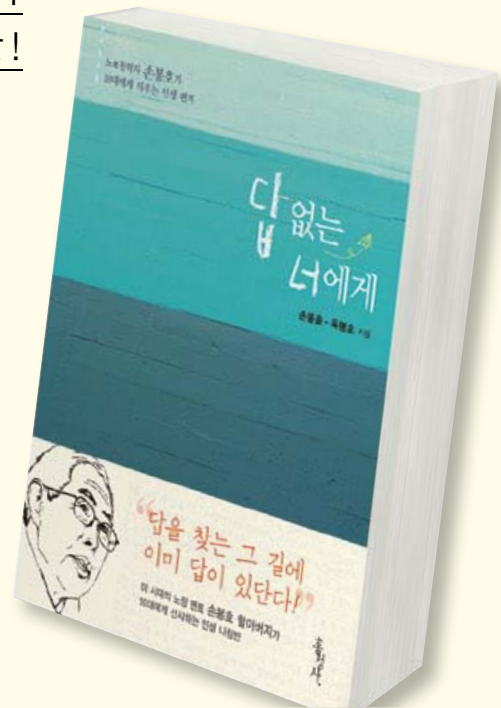
이 시대의 노장 멘토 손봉호 교수가  
10대에게 선사하는 인생 나침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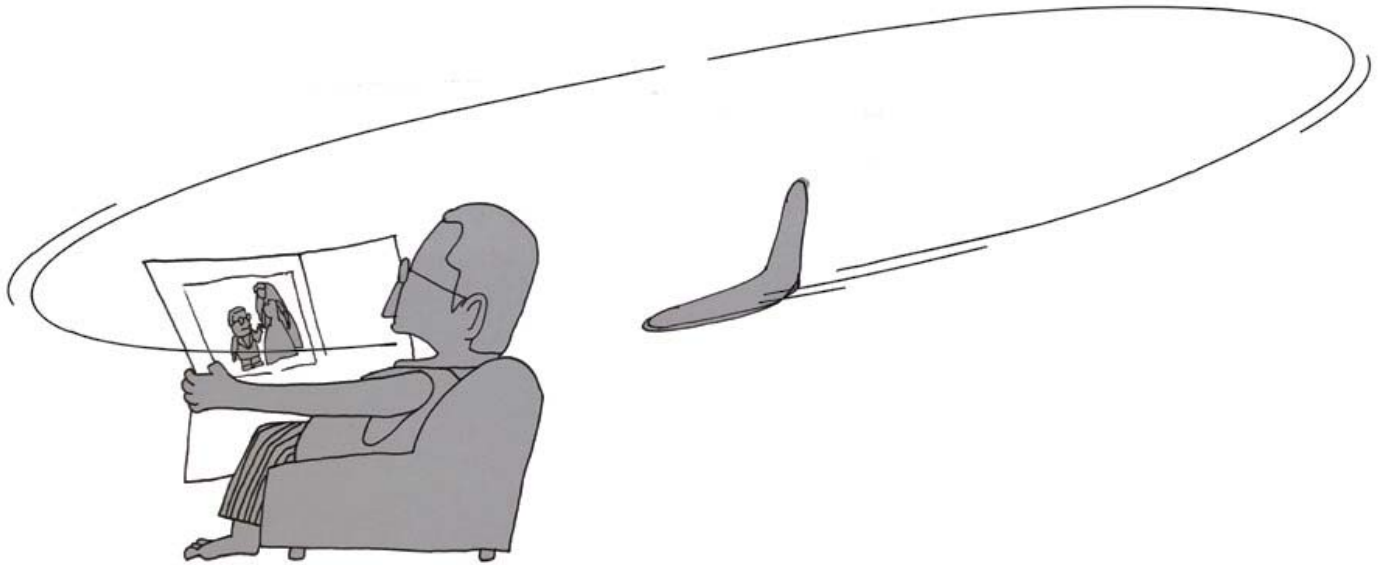
답을 찾다 길을 잃으면

이 나침반을 따라가렴!

손봉호·옥명호 지음

A5변형/208면/8,000원





## 부메랑

어떤 중년 남자가 아주 예쁘고 유명한 여배우가 별로 잘 생기지도 못하고  
유능하지도 못한 남자와 결혼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혼잣말로  
“그렇게 예쁘고 유능한 여자가 이렇게 못 생긴 엉터리와 결혼하다니, 쫄쫄” 했다.

옆에서 그 말을 엿들은 아내: “여보, 그렇게 말해 주니 고맙네요!” 🌀